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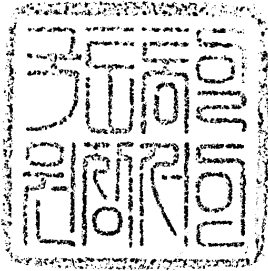
국통조76-12-108

3352

911.001

北韓調查研究—社會文化

# 北 傀 歪 曲 史 觀 批 判



*Handwritten signature or mark below the seal.*

북한사관  
 남북한사관  
 " 국사관  
 한국국사관  
 북한국사관

國 土 統 一 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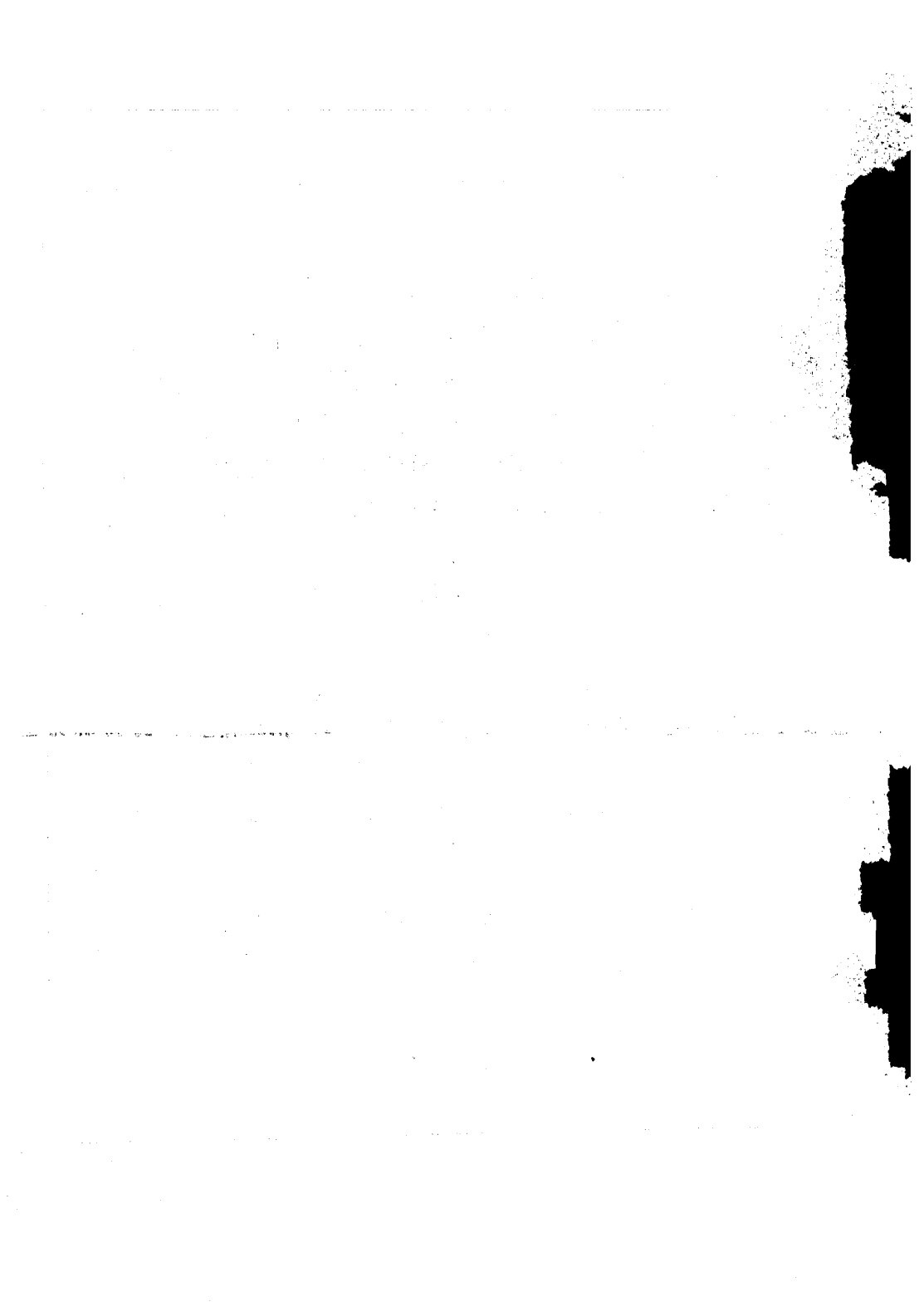


本 報告書는 大韓民國의 平和統一政策을 理論적으로  
體系化하기 위한 基礎作業의 一環으로, 南北韓 歷史解  
釋의 差異를 比較 檢討하는 가운데 北傀의 歪曲史觀  
을 分析 批判하고자 試圖한 問題 提起의 研究이므로  
斯界 專門家나 一般學界에 의하여 本格的으로 따져지  
는 契機가 되고 거기에 若干의 參考가 되었으면 한다.

1976年 12月 日

1. 研究責任者 : 調查研究室 社會文化研究官室  
研究官 朴 竣 弘
- 參 與 者 : 補 佐 官 李 源 明  
補 佐 官 崔 炳 輔
2. 原稿執筆者 : 慶熙大學校 傳統文化研究所  
所 長 朴 性 鳳

國 土 統 一 院 調 查 研 究 室



## 目 次

|                     |    |
|---------------------|----|
| 1. 머리 말             | 1  |
| 2. 南北韓의 國史觀 比較      | 2  |
| 3. 時代区分上의 差異        | 4  |
| 4. 各時代와 重要問題點의 解釈差異 | 10 |
| 5. 나머지 말            | 87 |



## 1. 머 리 말

- 韓國史 研究은 이제 日帝以來의 史觀에 대한 對應的 接近 같은 否定的 側面에서 과감히 벗어나 自己中心的 肯定的 次元의 새로운 研究가 바람직 하다고 봄.
- 北韓에 대한 研究도 또한 共產主義自體의 矛盾批判에 머물것이 아니라 이미 30년 동안 우리 民族의 큰 한 部分이 그 主義에 의하여 어떻게 變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意味가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對處해야 하는가 등등의 問題가 새로운 次元에서 本格的으로 討究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됨.
- 이런 觀點에서 볼 때 가장 基本的인 문제의 하나가 될 南北韓 歷史解釋의 差異를 比較 檢討하는 作業은 매우 緊要하고 時宜에 맞는 것이라고 느껴짐.
- 以下 짧은 時間과 制約된 資料로 나마 우선 問題 提起의 範圍에서 歷史敘述上의 北韓의 可恐할 狀況과 韓國의 未洽한 實情을 살피나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2. 南北韓의 國史觀 比較

### 가. 韓國의 國史觀

- 弘益人間的 人文主義·民族主義와 自由民主的 個人尊重主義가 大原則으로 내세워져 있으나 실제로는 区区多様하고 두드러진 것이 적음.
- 따라서, 그 동안 民族主義史學·社會經濟史學·實証史學 등 여러 傾向을 發展的으로 繼承하여 巨步를 내딛은 것은 事實이나, 많이 個別的 研究에 致重하여 獨自의 體系의 新時代, 新 民族史學은 그 基本的 方向이 바야흐로 摸索되는 段階에 있다할 것임.
- 國史編纂委員會에서는 근래 「民族主体性에 立脚하여, 民族의 歷史와 文化의 成長發達을 중심으로 各 時代에 있어서의 民衆의 活動을 浮刻시키는 가운데 民族의 內在的 發展方向을 認識케 하는 韓國史의 編纂」을 企圖한 바 (「한국사」編纂 要綱 참조) 이것은 韓國史觀의 가장 最近의 一般的 見解를 옮긴 것으로 보임.

나. 北韓의 國史觀 (※ 以下 參考引用書中, Page表示만 있는 것은 「조선역사」(1963년 46 倍版 학우서방간행)의 面數를 가리킴. 단, 本論p.48 以前은 上卷, 그以後는 下卷의 Page임.)

- 唯物論과 唯物史觀에 입자하여 階級鬭爭의 實踐的 意義를 認識케 하고 金日成의 敎示精神의 體得을 強調하는 目的이 明示됨. 「김일성 동지와 우리당 중앙 위원회 사상으로 자체를 더욱 튼



특히 무장하도록」云云(p.3).

- 歷史의 創造者가 人民大衆이라는 前提下에 国内外의 怨讐들과 싸우는 革命的 鬪爭史를 主內容으로 내세움-
- 民族文化의 伝統을 認識함으로써 社會主義제도하에서의 새로운 民族文化의 發展을 企圖함.
- 歷史主義의 原則과 党性의 原則을 固守토록 하여 過去 歷史의 進歩的 愛國的 內容의 把握과 階級鬪爭의 歷史評價를 主張함.
- 反資本主義的 見解와 또 資本·레닌主義의 틀에 맞춘 圖式的 見解 및 外來帝國主義의 近代化寄與 見解등을 배격함(p.3~4).
- 革命戰士 育成의 實踐的 意義를 強調함.

### 3. 時代區分上의 差異

#### 가. 韓國의 時代區分 論議

- 1) 몇 가지 類型 (乙酉文化社 : 韓國史時代區分論, 其他)
  - ① 時間의 遠近에 의한 것 (崔南善·李丙燾 등의 西洋史式 古代 中世·近代의 三分法을 따른 時代區分法)
  - ② 社會發展의 段階를 基準으로 한 것. (社會經濟史家를 비롯한 一般史家들의 原始社會·古代社會<혹은 奴隸社會>·封建社會·近代社會<혹은 資本主義社會>로 區分하는 法)
  - ③ 民族의 成長過程 또는 時代特徵의 主題를 基準으로 한 것 (孫普泰·李仁榮에 의한 試案的 區分法)
  - ④ 支配勢力의 變化에 따르는 것 (李基白등이 세운 時代區分)
  - ⑤ 文化·思想的 特徵을 中心으로 하는 것 (朴性鳳의 講義案에서 構想하고 試圖中인 區分)
- 2) 여러 區分法의 檢討
  - ①은 三分法에 의하여 王朝中心區分法을 批判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內容的으로는 거기에 되돌아감 (崔南善 : 朝鮮歷史, 李丙燾 韓國史大觀 등)
  - ②는 韓國社會의 發展을 世界史의 發展法則 속에서 잡아 보려는 發展的이고 意慾的인 것이기는 하나, 奴隸社會·封建社會 등을 내세워 結果的으로 우리社會가 變形的 劣等的인 것으로 되고 마는 欠陷이 따름 (서울大國史研究室 : 韓國史概說 등)

③은 民族과 社會의 發展을 아울러 把握하려는 이론의 新民族主義史觀으로서 提唱된 것인데, 試論적인 데 머물렀으며 主題別의 것은 論理的인 一貫性이 欠如되어 있음. (孫晉泰: 國史大要, 李仁榮: 國史要論)

④는 ③을 發展의 으로 展開하여 支配的인 身分階層에 의한 時代的 性格의 浮刻을 노린 것인바 이 法은 王朝史觀을 克服한 新新하고 說得力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 그 支配勢力의 民族史에의 生産的 寄與나 創造의 文化性에 관한 配慮는 論外로 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음. (李基白: 韓國史 新論) 이 點은 1976年 改正版에서도 大同小異한 듯 보임.

⑤는 위의 여러 點을 감안하여 취하되 「韓國民族史의 가장 特徵이 될만한 半島中心의 文化中心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三國鼎立 以前은 民族移動의 東進속의 半島中心의 定着期로서 다루고 그以後는 農業社會의 安定속의 文化中心의 發展期로 잡아 이것을 仙敎文化期, 儒敎文化期, 科學文化期로 나누어 ④의 아쉬운 點을 補完하려고 試圖中인 것임. ④에서 내세운 支配勢力의 民衆과의 一體的 準拠性 등 그 民族史의 意味如何는 더욱 큰 問題인 바, 이 點에 있어서는 王朝史(처음에는 民의 集結위에 組織되고 끝내 民族의 政治·經濟·社會·文化的 綜合生命體의 歷史가 되므로)가 반드시 排除되어야만 할 것은 아님. 언제나 歷史的 經驗이 그 때, 그 곳 條件에 어떻게 適用되느냐에 따라 그 本質의 性格은 들어나기 마련이므로 權力, 金力, 知力은 그 自体보다 實際

의인 爲民의 質(文化度)과 量(文化量)에서 따져져야 할 것으로  
思料됨.

### 3) 一般의인 編年

몇 10 만년~3만년 전후 - 旧石器時代(地域的 定着前의 汎人類  
的 次元)

B.C. 3~2 千年代-新石器文化期(農耕의 시작)

B.C. 7~6 세기代-青銅器文化期(城邑國家)

B.C. 4~3 세기代-初期 鐵器文化期(聯盟王國)

B.C. 2~1 세기 후-鐵器文化普及期(三國의 形成)

A.D. 2~4 세기 후-三國 및 伽倻발전時代(佛敎文化의 導入)

7~9 세기-大新羅 및 渤海時代(佛敎文化의 土着化)

10~14 세기-高麗時代(佛敎文化의 普遍化 및 새 儒敎의 伝來)

15~16 세기-朝鮮前期(士林文化의 隆盛)

17~19 세기 전반-朝鮮後期(實學의 발전 및 西學의 伝播)

19 세기 후반-大院君~大韓帝國時代(開化·衛正운동)

20 세기 - 日帝植民地時代~解放獨立時代(民族獨立·民主化운동)

#### 나. 北韓의 時代区分

1) 南쪽과는 달리 勞動黨 中央委員會의 統制아래(科學院 歷史研究  
所에서 共同執筆) 마련된 劃一的인 것임.

2) 「조선력사」(上卷 234 면, 下卷 303 總 537 면, 4.6 倍판 학우서방  
간행 1963) 에 보인 時代区分은 「조선력사」(고급학교 1학년  
교과서, 上卷 143 면, 학우서방간행, 1972) 와도 일치한 바,

- ① 原始史—〈太古〉~ B.C. 5세기
- ② 古代史—B.C. 5세기~ A.D. 전후 (古朝鮮, 扶餘, 辰國 < 3한 > )
- ③ 中世史—A.D. 전후~ 19세기 前半 (3國~朝鮮開港前)
- ④ 近世史—19세기後半~ 1945년 8월 (開港後~解放)
- ⑤ 最近世史—1945년 8월~現在

①에는 50 ~ 40만년전 平南祥原 검은모루遺跡, 약 10만년전 咸北雄基 屈浦里 遺跡에서부터 시작된 旧石器時代와 약 7천년 이후의 新石器時代(平南温泉 弓山里와 黃海道鳳山智塔里 유적이 대표) 및 약 4천년 전부터 약 2500년 전까지의 靑銅器時代를 포함시킴 (고교교과서 p.5~11)

②는 古朝鮮~三韓社會를 奴隸所有者 國家로 断定함. (한편, 古朝鮮은 B.C. 8~7세기에 建國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미 靑銅器時代는 거의 지나고 鐵器時代로 들어선 編年임. 同上고교 교과서 p.15)

③은 三國·統一新羅·高麗·朝鮮王朝의 대부분 (末期 開港前까지) 을 포함시켜 封建社會로 規定함.

④에서는 開港後를 資本主義社會로 策定시키고 있음.

⑤는 「조선력사」 1963년 판으로는 3.1운동 이후가 빠져있으므로 알 수 없으나 「조선력사」 下卷 (1957년 학우서방판) 이나 「조선통사」 下卷 (1959년 학우서방판) 이 이 시기를 다루고 있음.

2) 以上の 時代区分은 그들 自身이 序頭에서 警戒한 圖式的인 唯物史觀 바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西洋史의 發展過程이 그대로 우리 國史에 適用될 수 없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이 너무나 當然하고 明白한 事實이 따져지지 않은 채 準用된 것은 큰 문제거리임.

즉 ②에서 奴隸制 社會라고 하지만, 古朝鮮의 法禁上의 奴隸나 扶餘의 殉葬上의 奴隸는 고사하고, 高句麗에서조차 屬民制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農耕地나 農耕方式이 다르기 전에는 西洋의 古代的 奴隸制는 찾을 條件이 못되므로 断定할 根拠가 박약하며, ③역시 封建社會로 규정하지만, 西洋의 封建體制가 우리에게서 찾아질 것이 아니니, 高麗의 田柴科制나 朝鮮의 科田制는 西洋의 封土制에 해당되기 보다는 給料的 性格의 것이고, 우리의 佃戶制는 西洋의 農奴制처럼 土地支配者에게 隸屬되기 보다는 國家에 더 많이 負擔을 지는 면이 있었으며, 그나마 朝鮮後期에는 土地私有化 등 크게 傾向이 달라짐.

要컨데 三國의 成立부터 朝鮮後期까지를 모두 封建時代로 묶어서 断定할 근거도 充分치 못하거나와 더욱 그런 圖式化가 韓國史의 性格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도 되지 못한 위에 오히려 變形的 自卑를 促求할 危險性이 큼.

#### 4) 北韓의 編年 및 特殊年代 (고교1 교과서, 72년판)

약 50 ~ 40만년전—旧石器時代 (상원군 검은 모두 유적)

약 10만년전—旧石器時代 (웅기군 굴포리)

약 7천년전-新石器時代

약 4천년전~약 2500년전-金屬器 (青銅器時代)

기원전 1천년-濊族 농업 為主, 사냥, 목축 발전

기원전 8~7세기-첫古代國家 古朝鮮 건국

기원전 6세기-古朝鮮 鐵器使用

기원전 4세기 중엽-扶餘의 출현

" 2세기-辰國의 강화

" 1세기중엽-高句麗 성립

기원후 1세기중엽-百濟의 성립 } 封建國家의 형성

" 2세기중엽-新羅의 성립 }

172년-高句麗의 한나라 침략군 격파

238년-百濟에서 鼓吹樂團을 조직

285년-百濟에서 王仁을 일본에 파견

330년-百濟에서 碧骨堤 만들.

438년-新羅의 于靺이 가야금의 새 곡을 만들.

647년-慶州에서 첨성대를 세움.

676년-新羅에 의한 국토 남부의 통합.

718년-新羅에서 물시계를 만들.

936년 統一的 封建國家의 출현, 高麗에 의한 國土의 統一

1413년-거북선을 창안하여 戰鬪練習

1861년-〈大東與地圖〉의 완성

#### 4. 各時代의 重要問題點의 解釋差異

가. 原始史

北韓의 歷史觀(以下 北으로 略稱) 原始時代

差異點(以下 差로 略稱) <原始時代>로 別無卷

##### ㉞ 原始共同體 社會

差: 原始 社會

- 原始社會를 章, 石器時代를 節, 舊石器時代를 項으로 잡고, 打製石器를 쓰던 舊石器時代 유적으로 부터 叙述을 시작한 것은 南北韓이 大同小異함. 그러나 北韓이 人類生活의 文化的 指向을 外面하고 經濟的 勞動으로만 포착하려는 것은 소위 翻一의 凶式化的 所致라 하겠음.

##### 1) 人類社會의 發生

- 人類的 發生은 勞動 行程을 通하여 이루어졌음 (p.9)
- 손(手)은 노동도구임 (p.9)

差: 「人類的 發生」云云의 句節은 「人類社會는 勞動過程을 통하여 시작됨」云云(上記 고1 교과서 p.5)의 애매한 表現으로 생각됨. 하여튼 經濟活動이 生存의 基本이므로 일단 首肯되는 면이 크나 한편 文化創造의 過程이요, 그 면의 道具가 된 點은 또한 重視해야 할것으로 봄.

北: 原始共同體 制度는 人類的 첫 社會制度였음. (p.9)

- 富와 貧이 없는, 階級도 없는 平等 社會 - 無階級 社會였음.



그 後의 數千年 間의 階級社會는 일정한 歷史的 產物임 (p.10)  
差: 小人口, 低生産으로 因한 未分化와 그에 따른 必然性이 아울러  
문제 되어야 함.

2) (民族共同體制度下에서의 우리先祖들의 生活)

○ 原始共同體 社會는 3段階로 發展하였음 (p.10)

첫째 단계 < 原始群 時代 >

둘째 단계 < 氏族共同體 時代 >

셋째 단계 < 軍事民主主義 時代 >

差: 셋째 단계는 未可解

北: 民族共同體 時代에는 一定한 分業에 의하여 모든 成員이 다  
같이 勞動에, 參加하였음 (p.13)

○ 男→漁獵, 女→採集, 老→勞動 道具 製作, 少→간 심부름, 누구도  
늘고 먹는 사람은 있을 수 없었음 搾取者도 없었음.

差: 當연한 단계로 轉위의 必要도 없을 뿐더러 그런 階梯가 안된  
條件이 중요함.

北: 道具가 유치하여 男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때가 있더라도  
女子는 그대로 늘 먹는 것을 장만할 수 있었음. 이 시대에는  
女子가 經濟生活에서 더 重要한 役割을 하였음.

(고교 1 교과서 p.8)

○ 母系 社會에서의 結婚形態는 < 男性兄弟集團 >과 < 女性 兄弟集團 >  
團 >間의 群婚이었음. (p.14)

○ 女性 兄弟 集團이 다른 氏族 共同體 成員의 男性 兄弟 集團

을 자기들의 男便으로 마지하였음.

差; 母系社會의 一般性임.

北: ○ (石器使用으로 부터 金屬器 使用에로의 이행) 氏族 會議는  
흔히 神聖視되던 산봉우리나 큰 바닷가에서 進行되었음.

(p. 14)

○ 父系氏族의 出現으로 原始共同體 社會는, 軍事 民主主義 단계에  
이름. (p. 17) 貧, 富와 私有財産制가 發生하게 됨.

○ 私有財産의 發生은 氏族共同體의 崩壞를 가져왔음. (p. 17). 그  
러나 土地에 대한 共同 所有는 아직 남아 있었음. 그리하여  
氏族共同體는 <村落共同體>로 移行하였음. 이런 때에 <種族>  
이 形成되고 그의 上層 機構인 軍事 民主主義機關으로서 <種族  
評議會>가 출현 하였음. (p. 18)

○ 住民集團이 急激히 확대되면서 每個氏族, 種族이 擴大될 뿐 아  
니라 여러개의 種族들이 種族同盟의 形態로 묶이워 갔다. (고교  
교과서 p. 12)

差' 部族을 種族이라하여 人種的 種族과 混同될 憂慮가 있음.

3) 우리 先祖로 된 여러 種族들

○ 私有財産의 發生은 貧富의 差別로 人間을 착취할 수 있는 經  
濟的 가능성을 나타내게 하였음. 種族 間의 戰爭 捕虜는 奴隸  
로, 共同體 안의 가난한 사람들의 일부를 奴隸로 부리는 현상이  
나타났음. 따라서 奴隸와 奴隸所有者로의 最初의 階級分裂이 惹  
起됨. (p. 19)

差：階級分化로 보고 그 必然性和 問題點 살펴야

北：〈種族會議〉는 氏族會議의 民主主義的 形式이 保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全體 成員의 利益을 위한 問題 보다도 이웃 種族에 대한 掠奪, 戰爭을 위한 軍事的인 問題가 주로 討議되어 上層利益을 代辯하는 機構로 변모함. ( p.19)

- 種族會議는 族長층들에 의하여 軍事的인 問題를 民主主義的으로 運營하였으므로 이 시기를 〈軍事 民主主義 時期〉라고 함.

( p.19 )

- 戰爭의 擴大에 따라 一般 種族 成員의 地는 더욱 나빠짐.

( p.20 )

種族神에 對한 祭祀, 凶年 其他 自然災害에 對処한다는 구실하에 〈種族評議會〉는 一般 住民들로 부터 財物 및 集團의 勞働을 強要, 貧窮하여진 住民들이 빚을 지게 되자 그들을 奴隸로 만들었음.

- 社會는 변<sup>→</sup>妥協 할 수 없는 階級對立을 惹起시켰음.

( p.20 )

種族評議會는 착취 기관으로 변모함. 이리하여 「支配階級の 暴力 機關으로서의 國家 機構」가 形成되었음. ( p.20)

差：國家의 肯定的面이 全無하다면 王朝로의 發展은 不可能한것.

#### 4) ( 原始藝術 )

- 原始 時代의 藝術은 生産 活動과 直接 關聯되어 發生하였음

( p.23 )

○ 原始 時代의 音樂, 舞踊은 生産 活動과 直接 結부되어 있었으며, 集團的 群衆性을 가졌음 ( p.24)

共同 勞動은 단결에 의하여서만 큰 成果를 얻을 수 있고, 群衆的 音樂, 舞踊은 生産의 成果를 높이는 데 크게 作用함.

○ 藝術은 全 住民의 享有物, 그들의 生産 活動의 活力素 였음.

( p.24)

#### 4. 古代史

差: 三國建國以前으로 局限하여 南쪽의 後三國까지와 큰 對照가 됨.

◎ 奴隸 所有者 國家 - 古朝鮮, 扶餘, 辰國 (기원전 5世紀 ~ 紀元前後시기)

差: < 部族國家 또는 城邑國家 및 聯盟王國 >

北: 原始種族들은 朝鮮半島에 뿐 아니라 中國 東北地方一帶에 까지 널리 分布되어 있었음. 濊族 - 遼東, 遼西平原地帶, 貉族 - 그北方.

韓族 - 韓半島 南쪽 (고교1 교과서 p.14)

##### 1) (古朝鮮의 형성)

○ 우리 나라 最初의 階級國家인 古朝鮮은 B.C. 5世紀 頃, 遼河 流域 지방을 중심으로 濊 族이 세운 나라였음.

( p.26 ).

○ 古朝鮮은 半島西北部와 遼河流域까지에 걸치는 넓은 領土를 차지하고 있었음. 首都 王儉城은 처음에 遼河流域에 자리잡고 있었다.

差: 古朝鮮은 거의 처음부터 大同江流域에서 일어난것으로 보는것과

对照가 됨. (王儉城을 平壤에 있었다고 하는 등)

## 2) (古朝鮮에 관한 神話와 伝說)

○ 檀君 神話는 原始人들의 生活 모습과 소박한 思考를 찾아 볼 수 있음. 이 神話는 原始 末期로부터 階級社会 初期에 걸치는 時代的 符徵들을 自然 現象, 人物 現象을 통하여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一定한 体系를 가추어 묶어 놓은 先祖들의 훌륭한 文学 創作들임. 우리 人民의 悠久한 歷史 發展을 충분히 反映 하고 있음 (p.27)

○ 檀君 神話는 歷史的 事實 그 自体는 아님. 어디까지나 神話 임. 그런데 이 神話가 歷史的 事實인 것처럼 歪曲하여 民族 紀元을 神祕化함으로써 人民의 階級意識을 마비시키며 共產主義를 반대하는 手段으로 이용하고 있음 (p.27)

差: 앞에서 褒揚 하고 뒤에서는 갖다 부치는 矛盾 解放直後의 民族 感情的인 움직임을 曲解

北: 箕子 伝說은 古朝鮮의 發展相이 中國人에게 알려져, 中國 知識 人들이 古朝鮮을 하나의 理想的인 나라로 파악하여 당시 中國 聖人으로서 알려졌던 箕子를 고조선에 갖다 붙여 놓았던 것임. 따라서 당시 古朝鮮의 높은 發展 水準을 알 수 있음 (p.28)

○ 기원전 6세기경에는 벌써 鐵器가 普及되었음. (고교 1 교과서 p.16)

## 3) (社会 經濟的 發展과 國家機構)

B.C. 5世紀 頃 以後로는 鐵器가 급속히 보급되었음. 古朝鮮은 아시아 大陸에서 가장 앞

선 鐵器가 發展한 나라였음. (p.28)

증명 i) 쇠철수의 옛 글자인 <철(鐵)>자는 <쇠금(金)번에 <夷>로 되어 있는 바, 철이 <이(夷)>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줌. 夷의 가장 發展한 族이 古代 朝鮮族이었음. ⅱ) 古朝鮮의 中心 地域인 遼東 地方은 아시아 大陸에서 가장 일찌기 이름난 鐵 산지였음. 以上과 같은 사실에 根拠, 오늘날 세계 학자들이 이를 인정하였음.

差:箕子伝說을 美化한 것은 对照의이며, 近者 鐵器文化의 始作을 한世紀 뒤이는 것은 南北의 編年이 가 가까워진 것으로 보임.

北: 8條法禁은 奴隸 所得者 社會를 잘 反映하고 있으며, 奴隸 소유자 國家인 古朝鮮의 性格을 말하여 줌 (p.30)

i) 이 法律은 富裕한 者에게는 유리하게, 貧寒한 者에게는 不利하게 됨.

ⅱ) 이 法律은 奴隸 소유자의 利益을 철저히 擁護한 것임.

ⅲ) 奴隸들은 돈 50만의 가격으로 매매되었음.

o 奴隸 所有者들이 統治者들은 廣範한 農民들에 對한 착취와 抑壓을 強化하였음. 租稅의 명목으로 된 각종 生産物에 대한 수탈, 집단적 賦役 의한 노동 수탈 등으로 人民들은 國家의 奴隸와 같은 처지에서 生活하였음. (p.31)

差: 未開墾상태에 技術의 未振으로 奴隸所有와 착취가 甚한것으로 보기 어려움.

#### 4) (한나라 侵略者들의 驅逐)

##### ○ 漢四郡의 位置 (P.35)

樂浪郡…古朝鮮의 中心部 遼河流域

臨屯郡…遼東半島 南部일대

玄菟郡…鴨綠江 中流地方

真番郡…平安道 일대

- 漢四郡의 郡에는 漢나라에서 太守가 郡內의 모든 行政을 장악하고 있지 않았음. 郡이나 縣은 土着 세력의 支配下에서 종전의 통치 체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으므로 郡은 사실상 하나의 작은 王國이며 토착 貴族의 우두머리가 실제상 王으로 되고 있었음. (P.35)

- 太守는 따라서 다만 이곳 小 王國의 內政을 간섭하면서 漢人 상인들의 약탈을 보장하는 역할만을 했음. (P.35)

差: 郡縣位置之 北在說은 南쪽의 中間說과 對照的임.

#### 5) (扶餘의 社會 經濟的 發展)

- B.C.5世紀 頃 松花江과 黑龍江이 合流하는 地域에 翁族들로 구성된 扶餘가 형성됨. (P.36)

- 扶餘에서는 점점마다 武器를 所有하여 有事時에는 곧 자기의 武裝을 들고 外賊을 물리치는 싸움에 나아갈 수 있었음 (P.37)

- 奴隸 經濟의 發展을 反映한 것이 또한 扶餘의 法律임. 奴隸 소유자들의 利益을 철저히 擁護하며 勤勞 大衆을 抑壓하는 性格임. (P.37)

差: 史論이 史實을 넘어서서 現實性이 적음.

#### 6) (辰國의 社會經濟的 發展)

- 辰國에서는 奴隸들은 머리를 깎아여 일반 주민들과 區別되었음. (P.41)

- 奴隸들은 또한 神官들에게도 적지 않게 소유됨. 蘇塗 안으로

도망쳐 온 犯罪人들은 天君의 奴隸로 전락. ( p.42)

- 辰國의 지방 통치자를 <큰치>라 하고, 國王은 <큰치>의 대표자로 가장 큰 세력을 가진 <큰큰치(健吉支)>였음.

差: 日帝時代以來의 言語學的 接近이 많이 보임.

#### 7) (辰國의 崩壞와 三韓의 出現)

- B.C 194년 경, 古朝鮮 準王이 辰國으로 망명하였을 때, 辰王이 나라 동쪽 일정한 땅을 그에게 주어 안착시킴 ( p.43 )

- B.C. 1世紀 頃에 高句麗 系統의 流移民集團이 漢江 下流 地方으로 定着, 이보다 앞서 慶州地方에는 古朝鮮의 流移民集團이 定着 → 辰國의 分裂 促成. ( p.43)

- 馬韓은 辰國이 그 中心部로 壓縮된 辰國의 別稱 ( p.44)

- 馬韓 즉 辰國은 百濟에 의하여 統合됨. (紀元 初)

差: 우리의 경우, 辰國의 正體는 아직 확실치 못한데가 있지만 辰國에서 三韓이 나온 것으로 把握되고 있음.

#### 8) (思想)

- 祭天思想은 人民들에게 宿命論과 屈從 思想을 일으키고자 지배 계급이 이용하였음. → 계급 의식 마비 ( p.44)

- 하늘에 대한 支配階級の 宗教 思想에 反對하여 素朴한 唯物論 哲學 發生, → 陰陽 五行 思想 出現.

差: 東洋的 自然觀, 天人關係를 西洋的 觀點에서만 볼것은 아님.

#### 9) (科學 및 文學)

- 古朝鮮에 博士들이 있었음. ( p.45)



- 天文学의 發達は 古朝鮮 때부터 ( p.45)

1년 --- <한해> → 태양의 위치가 변동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간.

<한달>, <하루>도 마찬가지, <하루>란 고대어의 <할> 즉, 해를 가리킴, 새=틀=홍=할→<해>와 동의어

- 針術은 古朝鮮에서 시작 ( p.46)

최초의 침은 石針.

- 古朝鮮에서 歷史學 發達 ( p.45)

고조선 歷史에 대한 중국 文獻의 引用으로 알 수 있음.

差: 現實性 적음.

#### 10)(造形藝術)

- 土坑 무덤에서 發見되는 靑銅 製品을 비롯한 各種 副製品의 文化를 <검모(劍鏃)文化>라고 함. ( p:47)

差: 概念規定的 用語가 許多한데 一般性은 의심스러움.

- 古代 朝鮮이 한 때 東北 아시아에서 하나의 有力한 文化 中心을 이룸 ( p.50)

#### 다. 中世史

差: 三國에서 朝鮮後期까지 包括하여 南에서 高麗時代만 빼어 指稱하는 것과 큰 對照가 됨.

- ◎ 封建國家 3國의 成立과 發展, 隋나라 및 唐나라 侵略者를 反對한 戰爭에서의 高구려 人民의 거대한 勝利 (紀元前後시기 ~ 紀元後 7世紀 前半期)

差: <三国 및 伽耶時代>

1) (高句麗의 成立)

○ 農業 發展은 高句麗의 發展을 促進. ( p.52)

○ 朱蒙의 五穀의 증자 전설

○ 扶餘로부터의 影響

○ 朱蒙은 奴婢에 가까운 처지였음. ( p.53)

○ 神話에서 --- 扶餘에 있을 때 王室

목장의 말 飼養工

○ 朱蒙은 卓越한 軍事指揮者 ( p.53)

○ <封建位階制> 一國王을 우두머리로 하여 형성된 封建 支配 階級 內部的 從屬關係의 体系. ( p.54)

○ 高句麗의 封建 制度는 中央集權的 封建 制度였음. ( p.55)

差: 韓國에서도 이 時期의 封建論은 一部 있지만, 거의가 古代國家내 지 聯盟王國으로 봄.

北: 農奴 階層→下戶와 外居 奴婢. ( p.56)

○ 高句麗의 封建 國家 成立의 意義.

○ 外來 侵略의 防禦

○ 南部 朝鮮의 封建 制度의 樹立을 準備시킴.

差: 上 同

2) (百濟의 成立)

○ 百濟의 封建 國家 樹立 ( p.57)

1 世紀. 廣州에서

○ 百濟, A.D. 8年 馬韓을 滅亡시킴. (p.57)

○ 全羅道 一帶까지 領土 編入.

差: 三國史記記錄을 따른 셈인데 南에서는 近肖古王說이 더 많이  
행해지고 있음.

北: 馬韓 地域이 百濟 領土로 編入되는 過程→ 封建的 關係의 成  
立 過程 (p.57)

○ 百濟는 高句麗 보다도 훨씬 中央集權力이 強한 封建 國家임.  
(p.58)

差: 南에서는 王室의 莫強한 權力構造를 더 注目하고 있음.

### 3) (新羅의 成立)

○ 新羅의 封建 國家 成立 (p.59)

2世紀, 麗州에서

○ 眞骨은 聖骨의 傍系 子孫들과 聖骨以外의 六部의 村長 子女들  
임. (p.60)

○ 六頭品, 五 두품, 四 두품은 모두 六部 村長의 後孫들임. (p.60)

差: 地方에서 編入된 大小族長勢力도 考慮되어야 함.

北: 骨品制의 樹立은 封建的 位階 階層의 樹立을 의미함. (p.60)

○ 新羅 國家 成立 過程에서 鄉, 部曲이 나타남. (p.60)

○ 共同體의 잔재와 奴隸制의 잔재가 많았던 新羅는 人民들을 더  
욱 虐사 (p.61)

差: 史實의 뒷받침이 問題되어야 함.

4) ( 1~4世紀 고구려의 發展 )

● 高句麗의 次大王의 獨裁를 견제한 귀족인 明臨答夫의 政變 (165年) ( p.63)

○ 王后의 外戚인 左司慮의 橫暴를 除去한 故国川王. ( p.63)

○ 賑貸法의 實施 - 貴族들의 高利貸를 緩和, 農民의 奴婢化를 緩和.

差: 賑貸法의 肯定的 評價는 特別한것.

北: 明臨答夫의 政變, 乙巴素의 등용, 倉助利의 政變 등은 모두 階級 鬭爭의 反映으로 일어난 事變임. ( p.65)

● 大臣 倉助利는 포악한 王을 몰아내고 美川王을 추대한 것임.

差: 階級의 存在와 意識, 그리고 소위 鬭爭은 歷史的 條件의 變化와 더불어 생긴 것을 考慮해야 함.

北: A.D. 172년 漢의 侵略에 대항, 明臨答夫의 < 淸野守城 > 혹은 < 淸野堅壁 > 전술 수행.

○ 古朝鮮 滅亡 後, 그곳 人民들은 樂浪國을 세움. ( p.66)

○ A.D. 44년 漢이 樂浪國에 侵入.

樂浪國의 「동치배」는 漢의 세력과 결탁. 樂浪國을 維持하며.

高句麗, 百濟, 新羅에 攻擊 強化. ( p.67)

● 紀元前 시기의 遼東地方의 「악랑군 (樂浪郡)」을 다시 평양 地方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 처럼 描写하는 것은 잘못임. ( p.67)

差 : 樂浪郡 등의 在北說을 固守한 것인바, 位置問題보다, 租界的 地点乃至 變質的 存在化의 問題도 考慮되어야 함.

北 : 高句麗의 平壤 開拓은 魏나라 및 鮮卑族과의 苛烈한 戰爭中에도 繼續되었음. (p.67)

差 : 平壤을 特히 내세운것은 뜻도 있는듯 하나 高구려의 南進은 民族史的인 意義가 있는것임.

北 : 黃海道 一帶의 封建 勢力들은 2世紀 후반~3世紀 初에 樂浪國에서 떨어져 나와 帶方國을 세움.

○ 이들도 漢나라 勢力과 결탁, 따라서 漢나라 侵略者들이 이 地域을 帶方郡이라 부름. (p.67)

差 : 帶方郡 設置經緯의 異色の 說明

北 : 樂浪, 帶方을 統合한 歷史的 意義 :

1) 高句麗의 南進의 政治, 軍事的 地盤 마련

2) 全般的인 高句麗의 經濟的, 對外貿易의 發展 基地 : (p.68)

差 : 高句麗 南進의 意義를 強調하는 것이 되는바, 뜻과 달리 半島中心的 性格을 내세운 것이 됨.

北 : 鮮卑族의 燕나라 지배층의 權力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흔히 高句麗 勢力에 의거하여 目的을 達成코자 함. 예) 修壽

의 亡命. ( p'.68)

- 이 때의 고구려의 態度가 北中國의 政治情勢를 결정 하는 데 큰 影響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5) ( 廣開土王 및 長壽王 統治시기의 高句麗의 發展 )

- 高句麗의 法令 發布 : → 人民들을 封建的으로 착취하기 위한 것. 한편 各種 非法的인 가혹한 착취도 일정하게 제한한 것이 었기 때문에 發展的인 것임. ( p.69)

差: 고구려의 國際政治의 位置등 發展的인 실명을 하면서도 前後相轉된 敘述이 보임.

北: 高句麗 廣開土王에 의하여 甚大한 打擊을 받은 百濟는 伽耶와 日本 海賊들의 세력까지 끌려드려 고구려의 주도권을 認定하고 있던 新羅에 자주 侵攻하였음. ( p.70)

差: 너무 高句麗本位로 說明하는 것은 問題.

6) ( 6世紀 百濟의 發展 )

百濟의 中央 官庁은 21개 部署. ( p.73)

差: 22 부의 착오일 듯.

7) ( 新羅의 發展 )

- 新羅에는 고구려 및 百濟로부터 가혹한 착취를 피하여 수백 수천 명의 住民들이 흘러 들어 옴. ( p.74)

差: 史實的提示가 問題, 新羅의 好條件與否도.

北: 531년, 兵部와 稟主를 아울러 통제 하며 국정을 總括하는 上大等이 나타남. ( p.75)

• 6世紀初 国王 - 上大等 - 兵部 - 稟主 순서임.

○ 花郎團에서는 国王에 對한 忠誠心을 비롯한 封建 道德으로 成員들을 教育함. ( p.77)

8) ( 6世紀 高구려 對内外의 情勢 )

○ 6世紀에 百濟와 新羅의 統治 階級들은 領土의 擴張을 爲하여 中國大陸의 勢力을 끌어 들어려고 수단과 方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高구려 통치 계급들은 이와는 달랐다, 자기들의 主見에 따라 행동하였고 비굴하게 外國의 侵略 勢力까지 끌어 들어려고 는 생각하지 않았음. ( p.80)

差: 역시 高句麗 本位의 一方의 說明임.

9) ( 科学과技術의 發展 )

新羅에서는 < 화주 > 라는 유리 렌즈 제작. ( p.90)

○ 高구려는 < 封域圖 > 를 作成, 領土 표시 ( p.90)

○ 高구려; 新羅의 의학 서적이 수, 당 에서 널리 이용됨.

( p.90)

差: 史實性이 問題됨.

10) ( 哲学과 宗教, 教育과 歷史 編纂 )

○ 三國 時期는 宗教的 觀念論的 見解와 唯物論的 哲學的 견해 와의 鬭爭이 치열함. ( p.91)

○ 陰陽五行 思想은 生産者인 農民의 利益 代辯, 封建 貴族의 宗教的, 觀念論的 思想 조류와 鬭爭함. ( p.91)

○ 陰陽五行 思想은 自然科學의 哲學的 基礎가 됨. ( p.91) →

특히 <sup>東醫學</sup>東醫學에 <sup>影響</sup>影響을.

差: 附會의 一 根據, 『東醫學』云云은 南에서도 내세우고 있는 自主의 共通性.

北: 宗教의 流布를 --- i) 階級 鬭爭 마비시키고,

ii) 統治權 강화. (p.92)

o 儒敎 獎勵 - 封建身分 制度와 階級 關係를 그대로 유 ( 內幕) 內幕(보오取高百) 지코자. (p.92)

o 儒敎의 浸透는; (p.92)

i) 중국에 대한 事大 思想 유발.

ii) 형식주의의 統經主義 發生으로 獨창적인 思考 能力 마비.

o 仙敎는 善을

i) 人民들의 利害關係에 대한 鬭爭을 <惡>이라 하고,

ii) 그 苦痛을 참는 것을 <善>이라함. ( p.92)

差: 宗教의 積極的인 面 ① 一 從 度外視하려는 見解.

北: 三國時代의 文化는 주로 貴族들의 호화로운 生活와 그들의 宗教的인 目的을 達成을 위한 것.

o 노라수, ② 是것은 勤勞하는 人民에 의하여 創作된 것. (p.104) 勞人 面

o 民族文化 遺産은 ③ 우리의 자랑거리. ( p.104)

差: 앞 뒤의 評價가 合一된 境地를 추구해야 할것으로 보임.

1) (三) 三國時代 日本과의 關係)

o 現在까지 발견된 유물과 유적들에 의하면 기원전 1세기 1~ 紀元後 4世紀에 日本에 의 移住民들이 더욱 많



아졌다. 紀元前 1世紀에 日本列島内에는 아직 統一國家가 形成되어 있지 못하고 100 여개의 <小國>들이 있었다.

이 <小國>들 中에는 辰國 (3 韓) 사람들의 後孫과 伽耶, 新羅, 百濟로 부터 온 사람들이 지배적지위를 차지한 나라들도 많았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들 中에는 朝鮮반도에 있는 자기 本國과 밀접한 關係를 맺고 서로 來往한 나라들도 있었다.

또한 그러한 <小國>들 中에는 자기 本國의 이름대로 <가라 (伽耶)> 또는 <미마나 (伽耶의 다른이름)>, <시라기 (新羅)> <구 다라 (百濟)> 등으로 부르던 나라도 있었다.

이러한 <小國>들은 日本列島에서 新進勢力으로서 經濟와 文化發展에 큰 影響을 주었고 5世紀頃에 日本에서 統一國家가 形成되던 시기에 중요한 役割을 놀았다. (고교 1 교과서 p.31)

差: 伽耶 및 三國의 發展에 새로운 參考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新羅 및 渤海의 發展 (7世紀後半期, 9世紀)

差: <大新羅 및 渤海時代>

1) (7世紀 中葉의 三國情勢와 對外關係)

o 統一의 (與件) (p.105)

i) 三國 人民들의 統一의 念願이 沸騰했다.

ii) 新羅의 급격한 政治 軍事的 強化 發展.

iii) 高句麗, 百濟의 弱화

## 2) (侵略者를 반대한 百濟와 高句麗人民들의 抗戰)

### ○ 新羅의 唐 勢力 引入의 意義 ( p.107 ~ 109 )

1) 三國 통일의 主体로서의 自主성을 견지하는 條件에서 唐나라  
를 이용하면 통일이 可能하리라 打算

ii) 表面화된 唐의 本性을 깨달은 新羅 봉치자들은 百濟 侵攻 過程에  
서부터 唐軍 弱화에 注力.

( 百濟軍으로 假裝시킨 新羅軍이 唐軍을 공격하기도하고 百濟 抗戰力  
量의 主攻 방향을 唐軍에게로 유도하기도

iii) 百濟 항전을 이용하여 조선에 침입하려는 日本軍을 錦江  
入口에서 토벌한 新羅軍, 그 勇猛한 鬪志가 唐軍에게 충  
격을 줌.

iv) 百濟, 高句麗, 유민들에 對한 新羅의 安定 政策은 効果의임.

### ○ 意義

① 우리 人民이 單一한 人民으로 發展하여 오는 過程에서  
이룩한 거대한 成果. -

(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급속한 發展을 條件지움 )

② 3國 人民의 鬪爭에 依해서 成就된 것.

③ 最初의 目的이 達成되지 못한.

( 그러나 斷念하지는 않았다. )

差: 統一戰爭의 積極的 評價는 바람직하나 意義는 統一性이 欠如.

## 3) (新羅의 政治 經濟的 發展)

○ 新羅人들은 항상 渤海를 北朝 또는 北國으로, 발해인들은 新

新羅를 南朝 또는 南國으로 각각 부름. ( p.116)

- 外賊을 반대하는 戰爭일 뿐만 아니라 階級鬪爭이기도 하였던 ( 新羅의 3국 ) 統一 戰爭 行程에서 ; - 많은 奴婢들이 解放되어 누구에게도 人格的으로 隸屬 당하지 않는 良人이 됨. ( p.118)

差: 史實的 뒷받침이 問題.

北: 757년, 文武官僚田制를 實施함. ( p.118)

- 新羅의 郡縣制度의 편성에 따라 地方의 <部曲>들은 몇 개씩 합치는 方式으로 郡, 縣으로 편성됨. ( p.119)
- 大部分의 <部曲>들은 3국 統一 戰爭시기에 破壞됨. ( p.119)
- 統一 後에는 郡, 縣 밑에 한 두개 씩 部曲이 있었음. ( p.119)
- <新羅 統一~8世紀 中葉> ---
  - i) 中央集權 強化
  - ii) 政治的 安定 및 封建關係의 공고화.
  - iii) 生産力의 發展
- 8世紀 以後에 土地 集中現象이 나타남. ( p.121)
- 貴族 階級에의 土地集中현상의 背景. ( p.121)
  - i) 統一戰爭그리고 國家統治機能의 發展과함께 貴族 官僚에게 食邑, 賜田 등의 支給 확대.
  - ii) 土地開墾 獎勵政策과 關聯, 貴族들의 地方 開拓地의 所有化.
  - iii) 農民들의 離農現象을 逆利用, 그 土地를 貴族들이 所有.
  - iv) 寺院의 土地兼併 現象.

○ 8<sup>o</sup> ~ 9<sup>o</sup>, 農莊의 擴大와 割拠현상. 農莊主는 農場에 <莊舍> 라는 기관을 설치하고, <知莊>이라는 農場管理人을 派遣하여 이를 管理하거나 혹은 直接 管理함. 私兵까지도 保有함.  
< p.121)

○ 이러한 經濟 發展에 기초하여, 개별적 貴族 官僚들의 政治的 權力이 增大되어 王位 爭奪戰 激化됨. ( p.122)

差: 律令体制의 把握과 判異하고 豪族의 成長면이 不明確함.

北: 國家의 統制가 마비된 9世紀에 民間 商人들의 對外貿易, 進出 활발. ( p.122)

○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로 나가 바다를 開拓하려는 新羅 人들의 進취적이며 과감한 氣質은 바다에서 新羅人들의 名聲을 떨치게 함. ( p.122)

差: 內外條件아울러 따져야

#### 4) ( 渤海의 政治經濟的 發展 )

渤海 軍隊의 勇敢性 ----- < 3명의 渤海人은 한 마리의 범을 잡는다. > 라는 말이 당시 東方에서 유명했음. ( p.126)

#### ○ 渤海의 磁器 發達 -----

○ 紫磁盆 - < 크기가 한섬들이, ( 또는 반섬들이 - 고교 교과서 p.51) 內外가 透明, 두께는 한치가량, 무게는 털처럼 가볍다 > 고 기록되어 있다. ( p.126)

差: 渤海에 대한 肯定的 說明 흔적

北: 渤海의 對外貿易은 政治的 의도보다는 經濟的 意義가 컸음.

( p.127)

- 渤海의 貿易 대상국 ----- 唐, 日本, 契丹, 新羅 등이었음.

( p.127)

- 新羅와의 關係는 그리 頻繁하지는 못함 → 兩國 統治 階級들 의 ( 限界性) 에 기인함. ( p.127)

差: 新羅와는 交通이 없었다는 通說과 相反됨.

#### 5) ( 農民暴動 )

- 9c 農民暴動의 背景. ( p.127 ~ 129)

i) 8c 中葉 以後, 大田莊의 出現 및 中央集權의 弱화에 따른 農民의 貧窮化.

ii) 統治者의 타락, 繼統되는 王位 爭奪戰의 激화로 中央政府의 地方統制 機能 마비화.

#### 6) ( 新羅의 後三國에로의 分裂 )

- 9c 의 農民 暴動의 歷史的 役割. ( p.129)

i) 農民의 英雄的인 鬪爭은 奴隸制의 殘宰에 對한 決定的 打擊을 줌. 鄉, 部曲 등의 大幅 縮少

ii) 腐敗한 新羅 王朝를 마비시켰으며, 結局은 王朝를 顛覆시켰으로써 中世紀 우리나라 農民暴動의 歷史에서 유례가 드문 成果를 가져옴.

- 9世紀의 農民은 아직 封建制度의 不合理性을 인식치 못함. 따라서 農民暴動은 自己 發展 過程에 슬그머니 다른 封建 勢力의 出現으로 轉換할 可能性을 內包.

- 9世紀의 農民 暴動은 封建 制度를 反對하는 구호를 提起치 못하고, 또 아작은 할 수도 없었고, 다만 새로운 封建國家의 出現을 渴望함. ( p.129)

差: 後三國의 意義가 一方으로 把握되고 있음.

### 7) (思想)

新羅에 있어서 支配的인 思想은 風流 思想이었음. ( p.132)

- 新羅의 風流思想은 唯物的인 요소와 愛國主義 精神을 內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獨特한 思想임. ( p.132)

### c 風流 思想의 內容

人間 自身도 物質世界 즉 自然의 한 구성部分으로 보면서 人 爲的인 假飾을 배격하고 말보다 실천을 알세우며 國家에 忠誠, 父母에 孝道, 人間에 대한 善行등을 主張하는 것을 基本으로 함. ( p.132)

- 渤海에서는 고구려의 <白衣先人 思想>이 繼承되어 支配的인 思想으로 됨. ( p.132)

- 風流思想이 主로 思想面에서 統治者 들에게 封建國家에 對한 忠誠을 비롯한 實踐道德을 고취하는 것이었다면, 儒敎는 더욱 具體的으로 封建 統治 方法 등을 소유시키는 도구로서 장려 보급됨. ( p.132)

- 風流思想, 儒敎 → 國家生活의 現實的인 面에 注力.

佛敎 → 來世의 幸福한 生活을 說敎함으로써 人民을 무마하여 이들 思想을 보충하는 重要한 역할을 수행 ( p.133)

差: 花郎道를 風流思想으로 把握한듯하며 仏教土着化에 관한 설명은 全無狀態.

北: 異端的인 弓裔의 仏教 思想;

i) 仏教와 風流 思想이 結合된 것.

ii) 彌勒이 現世에 花郎으로 탄생하여 人間 教化 및 現世 樂園을 건설한다는 것.

iii) 착취계급을 대변하는 정통적 불교에 반대되는 것.

iv) 压迫과 착취를 현실적으로 克服하려는 農民들의 要求를 反映한 思想이었음. ( p.133)

差: 幽微的 言及이 없음.

8) ( 教育과 科學의 發展 )

B C初, 愛國的인 學者 金大問은 당시 일부 지식층 속에서 唐 나라 文化에 도취하는 傾向이 있는 것을 反對하고 自國文化의 主體性을 세우려고 努力함. ( p.134)

差: 金大問의 肯定的 평가는 마찬가지로 貴族들을 걸고 들어간 것은 不必要.

北: 新羅에서 漏刻을 만들어 時間 測定 ( p.134)

○ 新羅의 仇珍川이 7C에 千步 橋라는 기계 활을 만들다.

( p.135)

差: 科學發達의 強調

9) ( 文學의 發展 )

○ 崔致遠, 그는 高尚한 人道主義者였으며, 被착취 人民에 대한

동정 자였음. ( p.137)

○ (詩를 分析하여 예증하고 있음.)

○ 慧超는 실로 人類歷史 以來 最大의 徒步 여행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旅程은 거의 10만여 리. ( p.138)

○ 印度의 村落 모습에 對比 , 新羅의 社會 經濟的 모순을 間接的)으로 비판하였고 人民에 對한 동정을 표시함. ( p.138)

10) (조형 예술의 發展)

○ 석굴암의 佛像은 形象化된 부처의 능률하고 當당한 위력으로 日本 流賊들의 侵入을 驅退하려는 당시 藝術家들의 愛國思想이 깃들여 있음. ( p.140)

差: 文化藝術의 積極的肯定은 그 現實的 背景과 無關할 것인가.

北: 美帝는 慶州 博物館에서만도 數百點의 貴重한 유물들을 약탈해 갔으며 석굴암 佛像들은 變質해 가고 있고 그 주위일대에는 遊興場이 무수히 설치되어 貴重한 유물들이 破壞되고 있다.

( p.147)

差: 史實 與否보다 政治的 感情의 混同.

◎ 高麗에 의한 後 三國의 統一, 契丹 侵略者를 반대한 戰爭에서 의 거대한 승리. ( 10 ~ 11 世紀)

差: <高麗時代> 初期

1) ( 西京建設, 渤海人들의 고려에로의 來이동)

○ 北進 政策은 무엇을 打算하였는가?

1) 高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려는 200 年來의 人民들의 宿望.



ii) 옛 고구려 領土를 장악함으로써 後三國 統一의 主導權을 장악코자. ( p.149)

差: 南쪽 濠族세력의 統合을 爲하는 보다 現實的인 目的이 더욱 強調될 必要가 있음.

北: 개경 萬夫橋를 지금은 <락타교>라 함. ( p.150)

o 渤海民의 集團 이수는 統一을 지향하는 위대한 사변이었으며, 後三國統一 위업 完遂에 커다란 힘이 됨. ( p.150)

差: 渤海民과 統一直結은 飛躍.

2) (고려에 의한 後三國統一 위업의 완성 王建의 田稅減額 政策은

① 封建的 수탈의 합리화로 人心을 수습하여 국가 정권을 공고히 하려는 政策

② 同時에 근 1世紀에 걸친 農民들의 鬪爭의 戰取物이었음.

( p.151)

差: 王建政策의 否定的 評價는 앞뒤가 안맞음.

北: 高麗에 의한 統一의 意義:

i) 처음부터 人民들의 志向이 強하게 反映된 統一

ii) 人民의 主體의 힘에 의하여 달성된 統一.

iii) 人民의 오랜 숙망인 北方 開拓事業의 展開로 領域 擴大

iv) 발해민들의 大移動으로 同族 統一 完遂

差: 指導者와 소위 人民의 一體 關係는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領域擴大」云云은 現實的領域의 否定的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

3) (中央執權体制의 整備 強化)

- 農業 生産이 회복되고 一定하게 發展함에 따라 封建 政府는 확  
취 制度를 정비 強化함. ( p.152)
- 免災法 實施 ----- 作物의 손실이 40%인 경우에는 田稅  
면제, 70%인 경우에는 田稅, 貢物, 賦役을 다 면제함.
  - 그러나 잘 시행되지 않았음. ( p.153)
- 國家 收稅地 耕作자는 本質上 國家의 奴隸였음. ( p.153)
- 個別的 地主들의 農民에 對한 착취에 對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았음. ( p.153)
- 驛, 津, 館, 浦 등의 기능:
  - ① 國王의 命令 傳達
  - ② 軍事的 連絡
  - ③ 人民들로부터의 수탈물 運搬
  - ④ 人民들의 自由로운 이동 감시. ( p.156)

差: 否定的 強調는 政治的 觀點

北: 10世紀 末, 정비된 高麗의 통치 체제의 성격:

1) 被壓迫 人民을 抑壓 착취하기 위한것.

11) 그러나, 아직은 封建制度가 發展 段階이어서 生産力 發展을  
促進시켰고, 國力を 強化시켜 外賊을 擊退하는 힘이됨.

( p.157)

差: 앞뒤가 맞음.

4) 商業 및 對外貿易의 發展과 貨幣)

- 金屬 貨幣의 使用은 農民들에게 이롭지 못했음. (p.167)
- 封建 착취 계급들은 金屬 화폐를 강제로 쓰게 함으로써 農民들이 생산한 물건을 헐값으로 빼앗음. (p.167)

差: 貨幣가 一般化되지 못한것과 農民과의 關係는?

◎ 12C 社会 經濟的 矛盾의 長成

- 왜 일어났을까? (원인)
  - i) 국가 收組地 분급의 不斷한 확대와 제도 자체의 모순에서.
  - ii) 양반, 관료, 토호들의 合法的, 非法的 土地 集中에서
- 어떤 結果를 가져 오게 하였나? (결과)
  - i) 國家 財政의 窮乏과 中央 執權力의 弱화를 招來.
  - ii) 農民 生活의 파탄과 계급적 모순의 격화를 낳음.

差: 史実性問題

北: 11C末 ~ 12世紀 約 100년간, 가뭄이 60번, 大洪水가 6번이나 있었음. (p.171)

- 1) (妙清의 大爲國과 西北地方 人民들의 暴動)
- 妙清, 鄭知常 등의 主張은 대토지 소유자들을 反對하는 中小封建勢力들의 利益을 대변하며, 당시 人民들의 志向과도 일정하게 합치됨. (p.172)
- 妙清의 난의 性格을 개경의 大土地소유자와 地方의 中小 封建階級과의 계급 鬭爭으로 把握함.

差: 中央과 地方의 地域對立의 面과 現實利害상충의 解決等이 더

強調되어야

2) ( 무신정권의 출현 )

- 武臣의 亂以後 정부 요직에 앉은 武士들은 자기의 힘 자랑으로 날을 보냄. 高麗에서는 수먹을 휘두르면서 일을 처리하는 이들의 行動을 “수먹 바람 정치” (拳風政治) 라고 했음. ( p.175)

差: 武人政治의 否定的 評價는 大同小異

3) ( 12世紀 後半期 農民 暴動의 전국적 昂揚 )

- 12世紀 後半期の 農民 暴動은 初期에는 武臣政權에 대하여 政治的 不滿을 가지고 있던 一部 양반의 指導下에 展開됨. ( p.175)
- 趙位寵의 暴動은 人民들의 覺悟 정도와 意識 상태를 훨씬 提高시켰음. ( p.176)
- 1176년 公州 鳴鶴所의 農民들은 亡伊의 指導下에 農民軍을 編成하고 착취자를 숙청 소탕하는 鬪爭에로 進出함. ( p.176)
- 당시 農民軍은 亡伊를 山行兵馬使 (유격 사령관이란 뜻) 라고 부름. ( p.176)
- 農民들의 意識은 실시 鬪爭을 通하여 높아 갔던 것임. ( p.177)
- 鳴鶴所를 縣으로 承格 忠順縣이라 하였음. ( p.176)
- 西北一帶의 4개의 農民軍. ( p.178)

1) 가장 센 부대 - 趙位寵의 殘黨.

- ii) 組織 - 中軍, 前軍, 後軍의 3 부대로 編成, 각 軍에는 行首 (사령관), 指諭 (참모장) 등이 있고 총사령관은 中軍行首인 進國이었음.

iii) 活動 - 1177年 5月 西京을 攻擊하여 강악

- 1198年 萬穢은 高麗에서 奴婢制度를 없애자는 대담하고 勇감한 運動을 展開함. ( p.181)
- 만적 등 개경 奴婢들은 거사 날짜를 정하고 자기들의 鬪爭의 正義性과 正義性을 표시하기 위하여 黃紙에 丁字를 새겨 가슴에 달다. ( p.182)
- 李佐가 지도하는 농민군은 <신라부흥>을 내세우며, 부대 이름을 을 正國兵馬라 하고 직접 고려 王朝를 반대. ( p.182)
- 12世紀 後半의 農民暴動의 歷史的 意義 : ( p.183)

1) 歷史發展에서 거대한 역할 수행,

① 階級적 원수들에게 타격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一連의 양보를 하도록 함.

② 鬪爭 過程에서 奴婢制度의 崩壞가 顯著히 촉진됨.

ii) 전시대보다 현저히 진진한 鬪爭

iii) 뒤에 蒙古侵入에 完강한 愛國的인 鬪爭을 할 수 있었던 力量을 쌓음.

差: 賤民亂의 過大評價로 組織性不足, 全体的向上 안될 것의 必然性이 問題

4) 13C初의 國內의 情勢

- 崔忠獻은 경찰 특무 기관으로서 敎定都監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점차 기능이 變하여 일반 서무를 맡아 보는 書房까지 갖춘 그의 權利 行便 기관이 되었음. ( p.185)

差: 崔氏政權의 特性的의 一部에 불과

北: 1217년 경기도 水原(당시 振威)에서 李將大 등이 지도한 농민 暴動이 일어남. (p.185)

○ 李將大는 靖國兵馬使라 稱하면서 鬪爭의 기치를 높이 들었음.  
(p.186)

4) (蒙古侵略者를 반대한 항전의 開始)

○ 龜城 戰鬪에 참가하였던 蒙古의 한 늙은 병정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天下를 돌아다니며 많은 戰爭에 參加하였으나 이렇게 勇敢하게 싸우는 사람들은 처음보았다>고 말하였다고 함.(p.188)

강화천도 以後 蒙古 侵略者들의 侵略을 반대한 長期間의 항전

○ 蒙古 侵入時 地方의 愛國의 人民들은 從前의 農民 暴動軍이 核心. (p.191)

○ 江華遷都 때 이를 반대하여 官奴 李通 등의 暴動이 일어남. 蒙古 侵略에 대한 개경 방위에 나섬. (p.192)

差: 暴動만으로 解決이 다될 단계가 아니었는데 按排不適

北: 武臣政權의 강화도 遷都는 消極的인 対応策이기는 하나 肯定的으로 評價된다. 그것은 그들이 抗爭 力量을 組織 추동하는 데

서 主動的 役割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미약하나마 國家主權이 그 대로 유지됨으로써 人民들은 그에서 일정한 高무를 받을 수 있

었기 때문에 (p.193)

差: 江華遷都의 肯定的 評價는 異色的

5) (蒙古侵略者를 反對한 長期間의 抗戰)

○ (蒙古)의 侵略 위협이 강화되고 있던 시기에 武臣政權은 北方國境線에 여러 城을 修築하고 別抄軍(-特別히 組織한 防禦軍)을 組織하여 각지 山城에 파견함. (p.187)

○ 충주 戰鬪에서 金允侯가 한 말.

<이 어려운 亂局에 어찌 身分의 貴賤을 가리겠는가>고 하면서 奴婢 해방을 선포. 奴婢 문서를 소각함. (p.196)

差: 民族的 積極防禦強調는 大同小異

北: 1254년 야굴(也窟)이 <나는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支配하였지만, 오직 고려만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다>고 말함. (p.196)

○ 蒙古側은 高麗人民의 英勇한 鬪爭에 의하여 甚大한 打撃을 받고 난 後, 타협을 내세우자, 高麗側은 勝利者의 立場에서 和平 希望. (p.196-197)

6) (武臣政權의 崩壞와 國內情勢의 變化)

○ 蒙古의 侵略者들이 오직 高麗에 대해서만은 그 主權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의 愛國의 人民들의 不屈의 鬪爭의 승리였던 것임. (p.199)

7) 三別抄의 抗戰

三別抄의 暴亂과 抗戰의 개시

北: 左右夜別抄는 원래 武臣 政權을 擄護하던 軍대로서 農民 暴動軍을 진압할 目的으로 崔氏 政權 시기에 조직된 것. (p.199)

○ 三別抄 暴動軍의 抗戰政府 樹立함. (p.200)

1) 蒙古侵略者와 對峙한 高麗王室 政府를 認定치 않음.

1i) 蒙古 侵略者를 反對하는 高麗 政府가 嚴存함을 宣布함.

○ 抗戰政府가 珍島로 이동할 때에 1,000 隻의 배가 늘어섰으니 그 기세는 하늘을 찌르는 듯 함. (p.200)

○ 三別抄 항전軍의 活動. (p.201-203)

① 對外 抗蒙鬪爭이며 反封建鬪爭임.

② 日本遠征 準備로 시달리는 험벗고 굶주린 人民을 구제하기 위한 鬪爭이었음.

③ 漕運船을 탈취하여 원수들에게 재정적 타격을 주는 鬪爭임.

差: 三別抄의 肯定評價는 相通함.

◎ 13 世紀末 ~ 14 世紀 社會經濟 形便

1) (政治的 腐敗와 農民들의 生活 形便)

○ 濬王을 두게된 까닭?

滿洲地方이 옛 고구려 領土였다는 것과 關聯, 이 地方의 통치권을 고려 王族에게 부여함으로써 용감한 고려 人民의 환심을 사서 고려와의 마찰을 없애고, 中國 支配를 견고히 하고자 한 것임. (p.207)

差: 高麗政府의 견제책이란 見解와는 判異함.

北: 大土地 所有의 현상의 결과는; (p.207 ~ 208)

① 50% 地代와 함께 가혹한 수탈로 농민 暴動의 기세를 昂抑시킴



② 재정 파탄으로 政治的 위기가 조성되고, 愛國的 人民들이 政治, 經濟的 安定을 요구.

③ 人民들의 進出의 장성에 따라 정치적 불만을 가지고 있던 中小封建 勢力들이 토지 問題의 수습을 요구함.

## 2) (공민왕의 政策)

○ 辛旽 - 당시 유능한 정치가의 한사람. ( p.210)

○ 신돈과 공민왕은 친원 반대파에 의하여 압살됨. (p.210)

差: 史實性 뒷받침이 문제.

北: (紅頭賊 및 왜구의 침략을 격퇴한 人民들의 鬪爭)

○ 왜구 침략에 대한 高麗 조정의 消極的인 態度는; 統治者들의 상층인 大封建 勢力이 왜구 防禦를 爲한 軍事力 強化에 依하여 中小封建 勢力이 強化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 p.213)

## 3) (中小封建들의 政治改革運動)

○ 한 農民이 耕作하는 土地에 5~6名의 地主가 나타났으며, 한 農民에 對한 수탈이 1년에 7~8次나 行해되었음.(p.215)

○ <회초리 貢物> ----- 大封建 地主들의 農民에 對한 착취가 회초리까지 동원되어 應하지 않는 農民들을 구타하였다는 데서 그 당시 農民들이 일컫는 말이었음. ( p.216)

○ 趙浚 등의 土地 問題 수습 方案 ( p.216)

1) 全國의 土地를 國家가 管轄하자.

11) 農民들의 耕作地를 보장하여 農民들을 土地에 安着시키자.

丑) 官僚지체에 따른 수조권의 분배로 하는 科田制를 실시 하자.

- 이상의 改革도 農民大衆의 利益을 대변한 것은 아님. (p.216)
- 당시 國家가 장악한 土地는 50만결, 그 2배가 되는 土地는 大封建地主의 소유 (p.216)

差: 王朝의 反民衆化 傾向은 大同小異

◎ 고려시대의 文化 (10 ~ 14 世紀)

北: 高麗文化의 特徵

10 ~ 11 世紀 - 宗教 道德의 發展과 藝術의 規模가 크고 雄壯하며 생기발랄한 點.

12 ~ 14 世紀 - 人民의 性格이 강한 文學의 發展과 溫和하고 아담한 藝術의 發達.

○ 全時代를 通한 高麗文化의 特色

- ① 愛國主義      ② 自主精神      ③ 進取性

差: 全體的 肯定은 좋은데 以下の 叙述과 相峙되어 前後矛盾

1) 絶대한 燃燈, 八閏會의 儀式을 마치도 佛敎에 의하여 人民들의 生活 安定과 幸福이 이루어지는 듯이 가장하여 佛敎가 가르치는 <來世>에 대한 환상에 물젓게 하였다. (p.220)

- 高麗時代에는 佛敎와 在來의 自然崇拜, 風水說 등이 踴躍된 이단적 佛敎思想이 出現하였음. 그 대표적인 것이 12世紀

前半期 妙淸, 鄭知常 등의 思想임. ( p.220)

○ 妙淸 등의 思想은 많은 제한성이 있었으나, 당시 執權 계급들의 정통적인 儒敎 및 仏敎와 그들의 事大主義를 반대하는 人民들의 反封建的 기분과 愛國主義的 要素가 內包됨. ( p.220)

差: 仏敎普偏化의 副作用은 이해되나 異端的 傾向만 強調하는 것은 問題.

2) ( 敎育의 발전, 歷史적 變遷 )

北: 高麗時代의 儒敎

i) 저명한 대표자 ----- 崔承老, 崔沖, 金富軾 등, 仏敎的 主觀的 觀念論과 寺院 세력의 長成을 반대.

ii) 限界性 ----- 아직 哲學的 理論的 展開가 깊지 못함.

iii) 性 格 ----- 13世紀에 이르기까지 仏敎와 큰 差: 金富軾이 問題되는 것은 相通點

差: 金富軾이 問題되는 것은 相通點

3) ( 自然科學 및 技術의 發展 )

北: 太陽의 黑點에 對한 觀測

11C ~ 14C 末까지 360年 동안에 34回의 黑點 記錄이 있는바, 이것은 대략 11年에 1回씩 觀察한 것으로서 科學的으로 아주 精確하다. 특히 구라파에서

黒点 記録이 17世紀 부터 시작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의 것이 600年이나 앞선 것임. ( p.222)

- 医学의 發達 ----- <御医撮要>, <茶房所集藥方> 등 獨創的인 医書들이 많았음.
- 宋 나라에서 宋 末까지 - 11世紀에 123종의 書籍들을 우리 나라에 傳入하여 왔는데 그 中 8種에 139권이나 들어 있음. ( p.223 )
- 火藥, 火砲 製作의 始원 ----- (p.224)
  - 11 C 朴元紱의 <雷騰石砲>가 始원.
  - 14 C 崔茂宣의 <謀禦砲>라는 新觀 장치를 한 砲臺을 쓰는 大砲를 제작.

差: 科学發達 尙 尙은 參考할 點

#### 4) (文學의 發展) ----- ( p.225 ~ 228 )

- 鄭知常 - 서민적 立場에 노래 함.  
유명한 詩 <대동강>  
數千 數萬의 西道 사람들의 苦痛의  
삶은 情을 노래하였음. ( p.225).
- 李奎報 - 農民들의 苦痛에 無限한 同情을 기울고 착취자들  
에게 憎惡의 情을 吐露함.

유명한 詩 <농부를 대신하여 읊음>

「고랑에 엮드리여 비맞으며 김매니  
 거칠고 검은 얼굴 어찌 사람이랴  
 왕손 공자들아 업수이 여기저 말라  
 부귀 호사가 우리 손에 매였나니  
 햇곡식 무르려 채 익기전에  
 관리며 서리들 조새를 매기도다.  
 애써 가슴맹은 나라 위함이 어늘  
 어찌타 우리네를 살까지 벗기려노.」

○ 李穀의 <橡栗歌>에서 -----

「(前略) 요즈음 권세를 가진자 백성의 눈발 빼앗아  
 山과 내를 경계로 논귀 밭귀를 만드나니 ----- (中略)  
 장정들은 몇천이나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흩어지고 힘뭇쑈는  
 늙은 늙이 ----- 빈방만 홀로 지키니 참아 구렁에 굴러 숨  
 거두기 기막혀 호젓한 산등성이에 올라 도토리틀 चु나이다.  
 (中略)

누가 모르랴 저 아름다운 조반위의 기름자 음식이  
 모두 다 이 촌 늙은이의 피눈물이란 것을 /」  
 가장 탁월한 作風의 하나임. ( p.227)

差: 文学作品의 一端을 찬양한 것과 全体的으로 증오하는 것과 서로  
 모순 點

5) ( 예술 )

- 고려자기의 特色 -- ① 实用性, 芸術性 그 빛갈에 있다.
- ③ 그 文樣에 있다. ( p.232 )

差: 芸術性 讚揚은 多幸한 일이다.

◎ 리조의 성립, 15세기 社会經濟的 發展

差: <朝鮮時代> 초기

1) (과전법의 실시, 리조의 성립) - 科田法 실시의 동기…… 1) 자기들의 政治的·經濟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었음. ( p.3-4 )

○ 科田의 기본 내용 - 下卷.(以下同 생략) ( p.5 )

① 田柴科 제도가 本質上으로는 차이가 없음.

② 다만 大土地所有 현상을 防止하기 위한 制限 조건의 규정과

③ 中小官僚들의 經濟的 기반 확립,

④ 耕作者들을 토지에 고착시키는 데에서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임.

○ 軍田 ①리 성제 일파를 지지한 地方 토호들에게 본래의 所有地 를 참작하여 5~10結씩 지급함.

②명안·함경도를 제외한 지방의 토지에서 배정됨.

③군전을 받은 자가 서울에 올라가 복무하게 되면 科田을 지급받고 軍田은 후임자에게 넘겨 줌.

④ 軍田을 받은 자들은 軍田을 후손들에게 자연히 세습시킴

( p.5 )

○ 李朝 成立의 意義…무능력한 高麗王朝를 대신하여 수립된 강한 中央集權的인 政權으로서 ①對內的으로는 經濟 文化 發展에 일정한 자극을 줄 수 있었으며 ②對外的으로는 國防力 강화로 외적 침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긍정적 役割을 수행함.

( p.6 )

2) (中央集權의 封建체제의 수습)

- 私兵폐지는 국가의 중앙집권력 강화와 통치계급의 人民에 대한 폭압력 강화 ( p.7 )

差 : 私兵의 폐지가 中央集權의 強化를 의미한다는 것은 南北이 같지만 「통치계급의 人民에 대한 폭압력 강화」云云은 너무나 我田引水의 해석임.

- 太宋의 勸農法 및 五家作統法이 人的 資源의 担保를 통한 勸農政策내지 中央集權化 過程의 一環으로 나타난 것이 事實이지만 「토지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하고 봉건 착취를 함」云云은 誇張임.

- 土地를 경작하는 人民들을 장악하여 등록된 토지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하고 봉건 착취를 함 ( p.7 )

- 寺院 정리는 가혹한 착취자였던 寺院에 타격을 준 것인 만큼, 또한 非生産的인 가생층들을 生産에 나서게 한 것인 만큼 일정한 肯定的인 의의를 가짐 ( p.8 ).

- 從父隨母法을 제정……봉건 양반들은 주요 착취대상인 노비를 증가시키고자 ( p.9 )

3) (15세기 經濟發展)

<농업분야>

- 1) 發展조건……①國防力の 강화로 外侵이 없어 人民들의 安着化로,

- ②착취가 일정하게 조절됨으로써

③일련의 農業 장려책과 과학 기술의 도입으로. ( p.10 )

2) 1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移秧法과 2 모작이 이루어짐 (p.11)

3) 國防力 강화와 文化事業 育成을 可能케 했으나, 人民의 生活은  
여전한 ( p.11 )

差: 15세기 說은 南의 17세기說 보다 너무 일름

○ 封建政府에서는 商人들의 海外進出과 外國상인들과의 직접적인 접  
촉은 國家 기밀을 누설한다는 구실로 엄격히 통제함 ( p.14 )

4) ( 明나라와의 關係 ) …양국은 北方民族에 대한 ①國防上의 견지에서  
서 ②文化民族끼리의 經濟 文化的 견지에서 상호 利害關係가 같았  
음. ( p.16 )

○ 15세기의 정비된 통치 기구는 지배계급의 인민에 대한 착취를  
보장함 ( p.17 )

5) ( 中央集權의 統治機構의 強化 )

○ 5위 ( 衛 ) · 鎮管制……①文官들에게 指揮權을 맡긴 것은 武官들이  
반란을 일으킬 위험성을 막기 위한.

②〈無定將·無定卒〉의 원칙으로 편성된 것은 外國 侵略者들로  
부터 나라를 지키는 목적보다도 國內 人民들의 階級투쟁을 진압하  
는 데 더 중요한 목적을 두고 편성됨 ( p.19 )

差: 「문관들에게 지휘권을 맡긴 것은 무관들이 반란을 일으킬 위험  
성」云云이나 「봉건국가의 군대가 외국 침략자들로 부터 나라를  
지키는 목적 보다도 국내 인민들의 階級투쟁을 진압하는데 더 중  
요한 목적을 두고」云云은 我田引水의 階級鬭爭實現에서 나온 것임.



前者는 文官 優位 政策의 結果이고 後者는 治安의 一部를 担当  
했으므로 그렇게 쓴것 같은데 威鏡道 慶尙道 等 外敵과 接한  
地域에는 兵營과 水營이 더 많았음.

北: 軍隊 복무의 의무는 人民들의 高稅스런 役으로 되었음 ( p.19 )

6) (신분제도와 계급관계 )

○ 中·무당·기생 등의 臣民은 착취계급에 屬해 사는 寄生층으로  
서 人民을 欺騙하고 착취하는 존재였음 ( p.21 )

7) (봉건적 착취 제형태의 정비 )

○ 15세기에 정비된 封建착취의 諸形態 ( p.21 ~ 23 )

① 田稅를 통한 착취

② 貢物을 통한 착취

③ 賦役을 통한 착취

④ 高利貸를 통한 착취. ( p.21 )

①의 경우, 田稅 부과는 中央에서는 道·郡 단위로, 郡에서는  
面·부락 단위로 부과하였기 때문에 實力있는자들은 田稅를 적게  
물거나 그에서 제외됨.

②의 경우, 貢物은 戶口의 수와 京畿의 結수에 따라서 부과  
하게 되어 있었으나 實地는 實力있는 자에게는 적게 부과하고  
가난하고 무전리한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함.

③의 경우 국가에 대한 賦役이 원칙이었으나, 양반 判官 지주  
들이 기회 있는 대로 賦役을 蠲免함.

④의 경우, 국가에서는 착취한 쌀이 쌓여 썩어 가고 있었음→

그 對策으로 나타난 것이 蠶上 제도임.

- 蠶上이란 국가 축적米(응년 대비용 및 군량미 등)를 농민에게 꾸어주고 20~40%의 리자를 받아드리는 것임.
- 15세기에 정비된 착취체계의 특징: 田稅의 착취는 완화된 반면, 공물·부역 및 고리대 착취와 양반 관료들의 중간 착취가 그 전 시기보다 훨씬 강화됨(p.23).

#### 8) 함경도 농민전쟁

- 李施愛의 폭동은 함경도 農民전쟁으로 발전함(p.25)
- 李施愛 등 농민전쟁의 의의(p.26)

① 봉건 정부의 양보 정책이 실시됨. <神稅> 폐지.

② 착취를 조절하는 정책이 封建社會의 기본 모순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시사한 셈.

差: 李施愛의 亂을 「함경도 농민전쟁으로 表現하고 있는데 이는 東北西에 대한 中央權力의 침투에 반발하여 일어난 亂이었음.

「……북전의 착취자인 봉건정부와 남도 출신 양반들의 가혹한 억압 착취를 반대하여 투쟁」云云은 兩쪽에 대한 敵愾心 같은 것을 물어 넣기 위한 것인듯.

#### ◎ 社會 經濟 形便과 人民들의 처지

1) (농민들에 대한 봉건적 착취의 강화)

- 16세기 초 대신 柳子光은 서울에서 전라도 남원까지의 큰 길 옆의 비옥한 토지는 거의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듦. (p.28)

○ 國王을 <家長>으로 하는 왕실까지 토지 겸병에 직접 나섰음  
( p.28 )

○ 1557年 職田制의 폐지는 兩班들이 토지를 가지는 것이 非法  
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 p.28 )

○ 16세기의 대신 沈誼이란 자는 남의 집과 토지를 빼앗았고, 신  
지어 도적을 잡는다는 구실로 한 마을 사람을 모조리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음 ( p.29 )

○ 王室도 날로 늘어가는 사치비에 흉당교자 가면을 벗어 던지고  
高利貸 착취의 선두에 나섬.

15세기 말 각 지방에 설치한 內需司의 착취 고리대 기관이  
전국에 560개소 즉 郡·縣에 1개 이상임. ( p.29 )

○ 貢物과 進上을 통한 착취가 전례없이 가혹했음.

引納 防納은 물론, 이전에 100명이 부담하던 것을 10명에게서  
받아 내고 10명이 바치던 것을 1명에게서 받아 냈으며 그 한  
사람마저 없어져야 물장을 보는 격 ( p.30 )

• 兵役을 통한 착취도 강화됨.

i) 兵役은 ( 평화시에 ) 賦役으로 변함.

ii) 누가 나와도 관계없이 된 조건.

iii) 대신 上番시키는 경우가 늘어남.

iv) 대신 상번의 품삯이 2개월간 면포 18 ~ 20 벌

v) 서울에 사는 양반들은 노비가 대신 상번함 ( p.31 )

2) ( 士林들의 진술과 그들의 개적 )

- 士林派의 등장……같은 封建 착취자이기는 하였으나 士林들의 주장은 人民의 처지와 투쟁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肯定的인 側面을 가짐 ( p.32 )
- 士林의 등용은 國王이 마치 人民들의 처지에 대하여 그 어떤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듯이 보임으로써 人民들의 환심을 사고자 한 것임 ( p.32 ) .

差 : 成宗이 士林을 등용한 것은 世祖의 功臣들을 주축으로 하는 기성세력의 政權의 농단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봄이 타당.

### 3) ( 士林들의 정권 장악 )

- 士林의 진출의 세력 기반……留鄉所·司馬所·書院 등임. 위로는 훈구파 집권자들에게 대항하고, 아래로는 人民들을 封建的 질곡으로 구속하기 위한 지방 조직체였음. ( p.34 )

- 鄉約의 四德目은 : ( p.35 )

① 人民들이 소유하고 있는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儒教思想으로 표현한것.

② 부락에서 호상 방조의 성격인 契의 형식을 빌린 것.

### 4) ( 당쟁의 발생과 그의 해독 )

- 黨爭은: 높은 관직을 차지하여 權力을 장악함으로써 人民들에 대한·억압 착취를 감행하여 다른 양반들이 이미 소유한 토지와 노비를 탈취하는 <착취계급의 본성>에서 나온 것임 ( p.36 )

差 : 物質的인 利害關係에서만 파악한 것으로 이는 조선왕조의 思想的 制度的 社会的 經濟的 諸矛盾에서 露出된 綜合的인 結果로

보아야 되겠고 肯定的으로 官吏의 不正腐敗가 억제될 수 있었던 일면도 무시해서는 안되겠음.

○ 「국내봉건통치 계급을 반대한 流民무장단의 투쟁」에는 洪吉童 등의 투쟁이 보이는데 洪이 実存人物이었는지 의문임.

○ 党争의 해독 ( p.36 )

① 봉건 국가가 經濟發展에 대하여 작용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의 긍정적인 기능마저 완전 상실됨.

따라서 사회·경제 발전의 저해

② 국방에 대한 소홀로 국난을 당함.

5) (국내 봉건 통치 계급을 반대한 流民무장단의 투쟁)

① 전라도 張永奇 등의 투쟁 ( 1469-1470 )

② 1498 년 이후 洪吉童 등의 투쟁

③ 1530 년 경, 顧石 등의 투쟁

④ 1557 년 경, 吳運石 등의 투쟁

⑤ 1559 년 경, 林巨正 등의 무장 투쟁은 후세의 민간 설화에서 허다히 이야기된 것은 봉건 통치를 증오하고 반대하는 人民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임 ( p.38 )

6) (女真族의 侵入을 反對한 人民들의 鬪争)

○ 1587 李舜臣 장군이 景宗에서 침략한 여진족을 토벌함 ( p.39 )

◎ 임진조국전쟁 ( 1592 ~ 1598 )

差: 임진왜란

<임진 조국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오늘날 우리 人民에게  
無限한 긍지감과 자부심을 안겨주며 現 시기 美帝와 그와 결탁  
한 日本 軍國主義者들을 반대하는 조선 人民의 투쟁을 더욱 고  
무하여 줌. ( p.41 )

; 壬辰倭亂은 「임진 조국전쟁」이라 하여 1章 4節에 25 페이지  
( p.41 ~ 65 )에 걸쳐 詳論하고 있음.

( 리순신 장군이 거느린 우리해군의 빛나는 승리 )

거북선의 구조 ( p.47 )

길이 ~ 64 척 8 촌 ( 약 18 m )

넓이 { 머리부분 - 12 척 ( 약 3.4 m )  
허리부분 - 14 척 5 촌 ( 약 4 m )  
꼬리부분 - 10 척 6 촌 ( 약 3 m )

노-좌우 각각 10개 40명이 교대로 총통구멍 - 72개, 적중물  
높음.

방-도합 24간의 방

{ 2간 → 식료품, 3간 → 무기류  
19간 → 병사실 ( 兵士室 )

도요도미 히메요시 자신도 우리 해군이 공격해 오면 전투를  
하지 말고 육지로 도망하라는 지시를 내림 ( p.48 )

외병들의 애국적인 투쟁 )

壬辰 義兵部隊의 골간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던 農民  
들과 手工業者들이었음. 그리고 이에는 일부 良心의이며 애국적

인 儒生 양반들과 관료들, 심지어는 중들까지도 다수 참가한

( p.50 )

差: 我田引水式 해석의 소산으로 義兵將은 名望있는 士林들과 僧侶들이었으며 義兵은 兩班·農民·奴婢등이 망라된 民族의 抵抗意識과 正氣의 所産임.

3) ( 全戰線에서의 승리적 반공격전 ) -

○ 李長孫의 飛蟻震天雷는 세계 최초의 신관 장치를 가진 <時限 폭탄>이며 류탄이었음 ( p. 55 ) .

○ <飛車>는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비행기의 원형 가죽으로 만든 큰 배 수머니 속에 넣은 공기를 뿜으면서 바람을 이용하여 하늘로 날아 오르게 되었음. 2~3명의 인원을 태우고 30리나 날아 갈 수 있었음. ( p.56 )

무기 수송과 통신 연락에 이용함.

差: 과학적 뒷받침이 의심스러움

4) ( 총 공세의 개시 )

○ 明나라의 朝鮮 出兵 ( p.57 )

• 조선과 明은 唇齒 관계

• 明의 자신에 대한 防衛的 조치

• 利害관계의 共通性에 입각한 正當한 조치

5) ( 일본군의 2차침입, 을밀해전에서의 승리 )

○ 이순신 장군은 루명을 쓰고 1월에 체포되어 서울에 압송되었

으나 그를 존경하며 사랑하던 人民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친

통치자들은 그를 죽이지 못하고 석방시킴 ( p.61 )

0 鳴樂 대첩을 설명하면서 김일성의 혁명 가요 < 벽파정의 노래 >  
를 소개 ( p.63 )

差: 김일성 신격화의 일환으로 보임

6) ( 전쟁에서의 긍정적 승리 )

o < 壬辰祖國戰爭 >의 역사적意義: - ( p.65 )

- 우리 선조들의 거대한 승리는 오늘날도 우리 人民에게 무한한  
금지과 자부심을 간직케 함
- 美帝의 남조선 強占과 미제와 결탁하여 남조선에 재침하려고  
 획책하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을 더욱 고무시켜줌.

差: 그들의 好戰性을 엿보이게 하는 것으로 壬亂의 意義는 조선사  
회를 전·후기로 구분하는 일대 전환점이며 이는 조선 관료체제  
를 根本的으로 파탄시켜 보다 다른 사회로의 변질을 강요한 전  
쟁이며 조선사회의 士禍 黨爭이 빛은 내적 모순과 그 폐해가  
가져온 것임. 따라서 조선봉건사회의 모순을 자각시킨 反響의  
계기가 되었고 또 조선후기의 전반적 변혁의 동기를 초래케 한  
데에 留聲해야 할 것임. 특히 社會活動은 民族正氣의 表現으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임.

◎ 15 ~ 16세기 文化의 發展

- o 15 ~ 16세기 人民들의 훌륭한 文化 創造의 객관적 조건.  
( p.66 )



i) 봉건 經濟가 가장 발전함.

ii) 國防力의 강화와 政治의 安定期

iii) 세종왕 통치기에 실시한 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

1) ( 훈민정음의 창제 )

○ 15세기에 발전한 文化 중, 특별한 의의를 가진 것은 거의 다 稟賢殿의 연구 사업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됨 ( p.67 )

訓民正音의 창제 ( p.67 )

i) 目的 : - 밑으로 뷰터의 人民大家의 절실한 요구와 그리고 封建制度를 강화할 목적으로

ii) 意義 : - ①사회·경제·문화 발전을 촉진시킴.

②우리 말을 더욱 풍부하게, 아름답게 세련시킴

③일부 양반들의 사대주의 사상에 심대한 타격을 줌.

( p.68 )

差 : 「 심대한 타격 」 운운은 지나친 誇張

2) ( 의학의 발전 )

○ < 鄉藥集成方 > - 人民들의 실천적 경험과 의학자들의 연구가 결합된 것이 책은 人民性과 主体性의 표현임 ( p.70 )

○ < 医方類聚 > - 세계 최초의 의학 대백과 ( p.70 )

○ < 東醫寶鑑 > - 陰陽의 대립되는 두 요소의 균형과 통일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 보장된다는 등, 유기체 연구에서의 변증법적 접근이 내포됨 ( p.70 )

3) (역사 지리 및 기타 서적들의 출판)

- <이조실록>의 원본 중의 하나가 현재 김일성 종합 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음 ( p.72 )
- <경국대전> - 우리 나라 법학 발전의 높은 수준을 보여 줌 ( p.72 )

4) 철학사상의 발전) -

- 삼강오륜은 봉건적 지배와 복종 관계를 절대화한 것 ( p.73 )
- 객관적 관념론에 기초하여 현실 생활과 실천을 중요시한 이론은 주관적 관념론에 기초하여 래세를 실패하며 허무 맹랑한 말로써 기만하는 불교를 반대하였음 ( p.73 ) .
- 정도전의 유불론적 변증법적 견해 : - <불시잡변>에서 현실 세계를 물질적 기의 변화로 설명 " 氣가 엉키고 모인 것이 육체로, 정신으로 된다 " ( p.74 )
- 길재의 사상이 정도전의 사상과 구별되는 점은 三綱五倫의 윤리 도덕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는 것 ( p.74 ) .
- 16세기는 그 이전의 어느 시기보다도 哲學 문제가 광범히 그리고 심각히 논쟁된 시기로서 우리 나라 哲學發展의 역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시기로 됨 ( p.75 ) .
- 김시습 ( 金時習 ) - 객관적 관념론인 性理學의 主理說을 반대하고, 唯物論的 主氣說을 주장함.

그는 세계의 물질성을 氣로 표시하고 理는 어디까지나 氣 자체의 법칙성으로 된다고 이해함 ( p.75 )

- 徐敬德 - 唯物論的 主氣說을 주장한 우리 인민이 낳은 천재적인 唯物論的 哲學家임. ( p.76 )

서경덕은 인간의 정신, 지각도 氣가 모여서 된 것이라고 봄으로써 물질의 1차성과 정신의 2차성, 물질로부터 정신이 파생한다는 唯物論의 기본 원칙을 이해함 ( p.76 ).

- 李滉의 철저한 객관적 관념론은 반동적인 사상임 ( p.76 )

- 李珣의 철학 사상 속에는 유물론적 요소와 변증법적인 요소가 있음 ( p.76 )

差 : 金時習 徐敬德 李珣 등을 높이 評價한 반면 李滉에 대해서 「철저한 객관적 관념론은 ……인민들은 봉건통치대들에게 존중시키려는 반동적 사상」이라고 규정한 것은 일반적 唯物論의 입장 때문이다 하더라도 너무 대조적이며 朱子學 土着化의 內面的 의미나 가능성을 輕外視한 것이라고 보임.

##### 5) (문학 및 음악의 발전)

- 魚叔權의 < 緝官雜記 > - 人民性이 풍부한 작품으로 패관 문학의 최고 봉 ( p.79 )

- 16세기 林梯의 < 獄說 >에서 당시 관세를 부르고 있던 향반들을 국가의 쌀 창고 안의 늪은 도적취에 비유한 훌륭한 소설임 ( p.79 ).

##### ◎ 17세기 사회경제 형편

- 1) (임진조국 전쟁후 사회 경제 형편)

- <衛門屯田> · <宮房田> · <陳> 등은 임진 조국전쟁 시기부터 새로 도입된 착취 행위임 ( p.91 )
- <아문둔전>의 면적의 확대된 - 예 -
  - 1664년 한 관리가 왕에게 경기도 陽智縣 하나만 보더라도 4개 면중에서 2개 면이 아문 둔전으로 들어갔으니 고을 노릇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보고함 ( p.92 )
- ( 궁방전 ) 의 - 예 -
  - 1662년 황해 감사는 " 도내 토지의 절반이 ( 궁방전 ) 을 위시한 변세전으로 된 형편" 이라고 보고함 ( p.92 )

2) ( 청나라 침략만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

- 남한 산성에서의 굴복 :

왕을 비롯한 봉건 통치자들에게 있어서는 국가의 영예와 人民의 운명보다도 자기의 일신과 가족들의 운명이 더욱 소중하였던 것. ( p.15 ) .

差 : 이는 王敎 主和派중 어느 것이 現實的이었는지 의문 되는바 비록 屈辱關係를 맺었지만 孝宋의 北伐計劃을 통해 民族의 自主的인 抵抗意識과 民族意識을 살릴 수 있는 것임.

- 3) ( 대동법의 실시 ) 공물 착취를 반대하는 人民들의 투쟁에 의해 달성된 하나의 승리였음 ( p.96 )

差 : 이는 兩亂이후의 國庫의 充實과 農民의 救濟라는 목적에서 실시된 것임.

㉔ 상품화폐관계의 발전, 사회 경제적 모순의 장성

1) (농업의 발전과 농업에로의 상업자본의 침투) -

- 상업적 농업의 발전은 토지 소유에 대한 욕망을 증대시켜 토지 결별과 토지 매매를 성행케 함 ( p.100 ).

2) (수공업과 광산업에서의 자본주의 요소의 발생) -

- 수공업의 자유 발전은 부유한 수공업자들이 임금 고용자들을 착취함으로써 더욱 더 재부를 증대시킴 ( p.102 )
- 광산업의 발전은 광산에 모여든 인민들을 임금노동자로 고용, 착취함 ( p.102 )

3) (상업 및 상업자본의 급속한 발전) -

- 상업의 발전은 상인들로 하여금 편리한 <부기 계산법>을 창안케 함.
  - ( 송도 부기법 )에서는 단식, 복식부기까지 이용되었음 ( p.104 )

4) (화폐경제의 발전) -

- 금납 제도는 봉건 국가에 유리함. ( p.106 )
  - 각종 중간 착취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
  - 현물 납부에서 오는 人들의 노력을 감소시켜 <해택>을 배분듯이 가장 함으로써 인민들을 회유키만 할 수 있음.
- 화폐의 전국적인 유통은 사회 경제적 변화를 일으킴 ( p.106 ~ 107 )

① 상품 화폐 관계를 촉진

② 재부 축적의 수단으로 이용

③ 화폐의 집중 현상과 투자 등으로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됨.

④ 고리대의 상행 야기

⑤ 봉건적 생산 관계의 붕괴 현상과 새로운 자본주의적 요소를 장성시킴.

5) (봉건 착취자본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

o 균역법의 실시 배경 ( p.109 )

① 봉건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군포 부담 감소로 선정의 환상을 주노사.

② 관료들의 탐욕 행위를 조절하여 인민들의 투쟁을 무마코자.

③ 국가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o 노비공감법의 실시는 노비들의 장기간에 걸친 투쟁으로 달성된 승리임 ( p.110 )

o 1801년 공노비안의 폐지 : -

출기찬 노비들의 투쟁의 결과이며, 자본주의 요소가 자라남에 따라 나오게 된 역사적 산물이기도 함 ( p.110 ).

o 봉건 정부의 중세기적인 일부 악형을 폐지-장기간에 걸친 인민들의 인권옹호를 위한 투쟁의 결과로 달성된 성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p.110 ).

北 : 자본주의 요소의 장성과 봉건제도의 분해

농민폭동의 적극적 양양 ( 19세기 전반기 )

6) (자본주의 요소의 장성) -

o 수공업 부분에서도 자본주의 요소는 현저하여 <공장제 수공업> (마누팩처)의 출현을 보게 됨 ( p.113 )

o 일급·월급·도급 제도의 임금 노동제가 광범히 보급됨 ( p.113 ).

o 광산의 임금 노동자-우리 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프로레타리아>의 선구자들이었음 ( p.115 )

○ 광산을 경영하는 상인-산업 자본가적인 요소를 띠고 있었음.  
( p.115 ) .

○ 정약용-광산 국영론 주장 ( p.115 )

○ 광산 경영에서는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농후하게 자본주의적  
경영 형태가 발전함 ( p.115 ) .

○ 19세기 전반기 부유한 상업 자본가의 출현-대체로 중인, 아  
전 등.

• 오홍창... 본명 오한주 ( 중인 출신)

도매상 경영

興昌廻란 상호를 가짐.

정부에 재정 용자 ( p.115 )

7) (세도정치로 인한 정치적 부패)

○ 안동 김가세도 봉치자들 : - 전 집권기간 인민들에 대한 가장  
홍악하고 파렴치한 착취자, 폭압자 ( p.116 )

○ 구라파 자본주의 침략자들의 상투적 방법 : -

① 무장을 한 손에 쥐고 위협공갈하는 방법

② 십자가를 쥐고 침략의 발판을 삼는 방법

8) (평안도 농민전쟁) ( p.119 ~ 126 ) -

○ 역사적 의의

첫째, 통치배의 부패와 무능을 폭로시키고 심각한 타격을 주어 붕괴로 촉진함.

둘째, 농민들과 함께 상인 광부까지도 다수 참가, 관청·관료·지주층 처단할 뿐 아니라 봉건적 신분제도, 지방차별을 반대하고 일시 지방행정도 장악함.

셋째, 인민대중의 역센 투쟁력을 시위함으로써 각지의 새로운 투쟁으로 고무함.

差: 洪景來의 說을 이르는 것인바, 8 페이지에 걸쳐 상론한 것은 그들의 의도를 잘 나타낸 것임.

○ 구라파 선교사들: -종교의 탈을 쓴 자본주의 침략자들의 안내자인 동시에 간첩이기도 함 ( p.117 ).

○ 불만서인 선교사 3명 체포 처단: -조선 정부의 자주적인 정당한 주권행사이며, 우리 나라 국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응당한 조치였음 ( p.118 ).

9) (진주를 비롯한 각지에서의 농민폭동의 양양) -

○ 환곡: -국가적 규모의 강탈적 고리대 ( p.127 )

○ 지주들은 봉건적인 인신적 주종 관계를 그대로 지속시키면서 소작 농민에 대하여 경제적 및 경제 외적 착취를 강화함 ( p.128 )

○ 인민들의 투쟁의 강성은 봉건 정권을 전복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그것은 봉건통치 체제의 위기를 격화시키고, 통치체제의 마비화를 가져왔음 ( p.129 ).



◎ 실학 사상의 발전, 17 ~ 19 세기 전반기의 文化

○ 학습 내용 - 實學思想과 그의 영향하에서 발전된 과학·문학·예술의 내용을 학습함( p.131 )

1)(實學思想)- 역사 발전 과정에서 거대한 意義를 가진 애국적이며 先進的인 사상임( p.131 )

○ 이 章 학습을 통하여, 민족 文化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이해함( p.131 )

2)(실학사상 발전의 전제)- 實學思想은 反封建的 愛國思想( p.131 )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人民들의 저항을 대변한 반봉건적 사상, 즉 봉건적 억압·착취를 반대하고 人民들에게 生存의 權利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進步的 애국사상임( p.131 )

差: 이를 「애국적인 사상」이라고 높이 評價하면서 그 淵源을

「16세기 서화담에 의해 발전된 유물론 철학의 성과와 리올곡 사상」에서 찾고 있으며 「자연과학에 대한 깊은 연구는 그들의 세계관(유물론적 세계관) 형성에 크게 이바지」云云하여 唯物論과 聯関시키고 있음.

- 17세기 이후 봉건 통치자들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인 理學은 더욱 反動化되었고 그 해독성이 작용함 ( p.132 )
- 2) 實學發生 — 실학 사상은 우리 나라의 社會的·歷史的 산물이며, 그것은 특히 계급 투쟁이 양양되고 있던 역사적 환경에서 발생함 ( p.132 )
- 社會 經濟的 改革思想 — ( p.132 )
- 16세기 서 화담에 의해 발전된 唯物論 哲學의 성과 및 리 륭곡 등의 主氣論 철학자들에 의해 제창됨 ( p.132 )
- 실학자들의 唯物論的 세계관 형성 — ( p.133 )
- 그들의 자연과학에 대한 깊은 연구는 그들의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 형성에 크게 이바지 하였음 ( p.133 )
- 3) (실학자들)
- 李晬光 — 역사에서 人民들의 애국적인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함 ( p.134 )
- <임진 조국 전쟁> 승리에서 義兵 투쟁을 제 일차적인 것으로 파악함 ( p.134 )
- 柳馨遠 — 자연에 대한 唯物論的 견해, 실사구시적 태도,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부터 사회개혁안 작성 ( p.134 )
- 류 형원은 농민들과 수공업자 및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함 ( p.135 )
- 그는 봉건 제도 자체는 아직 시인하고 있으며, 계급 투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p.135 )

o 18세기 실학 사상이 개화 발전된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 p.135 )

- ① 자본주의 요소의 발생으로 봉건 사회의 분해 과정을 촉진시킴.
- ② 선행 학자들의 유산들과 외국의 우수한 자연과학의 수용 연구.
- ③ 봉건 통치자들의 참여화된 사회 계급적 모순 완화를 위한 실학 사상의 리용 시도.

o 李?翼의 사상 - ( p.136 )

- 자연 과학 지식에 안받침된 <唯物論的 사상의 소유자>, 천문학 및 지리학에 조예가 깊음 ( p.136 )
- 유·불·기독교 등 일체 허황한 종교적 교리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졌으며\* 물질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
- 그는 "전국 인민의 10 분지 9가 모두 원한과 울분에 싸여 있다"고 씀 ( p.137 )

o 洪大容의 사상 - ( p.137 ~ 138 )

- 자연 과학 특히 수학에 탁월함 ( p.137 )
- 無神論的 입장에 서서 오행설·도참설·풍수설 등을 비판함 ( p.138 )
- 그는 萬民皆樂, 萬民皆勞의 이상에 기초하여 봉건적 신분철폐 주장 ( p.138 )
- 事大主義 사상을 배격함 ( p.138 )
- 공자는 중국 사람이었으므로 중국을 높이 평가하였지만 그가

만일 다른 나라 사람이었다면 그 나라를 높이 평가하였을 것이다”

o 朴趾源의 사상 — ( p.139 )

• 唯物論的 세계관으로 불교·기독교 등 각종 종교적 신비설을 반대.

• 그의 세계관에는 변증법적 요소도 있음 ( p.139 )

• 우리 인민이 낳은 천재적인 사실주의적 작가임 ( p.140 )

《량반전》, 《법의 구중》 등에서 양반 사회의 부패상을 풍자함 ( p.140 )

o 朴齊家 — ( p.140 )

남의 나라의 것이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섭취하여 우리 나라의 현실적 조건에 적응하도록 세심히 연구할 것을 제의함 ( p.141 )

4) 실학 사상의 집대성

o 丁若鏞의 사상 — ( p.141 ~ p.145 )

• 그의 풍부한 자연 과학 지식은 그의 唯物論的 世界觀 형성에 크게 이바지함 ( p.142 )

• 그는 세계가 물질로 구성되었으며 … ( 中略 ) … 일체의 사물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부단히 변화 발전하며 동시에 그것은 두개의 대립적 측면의 통일로써 이루어져 있다고 인정함

( p.142 )

• 그는 無神論的 견해를 가짐 ( p.143 )

• 그는 풍수설의 허망설을 다음과 같이 폭로함.

《영웅 호걸의 충명과 위업은 능히 한 세상을 거느리고 만  
 민을 부릴만 하지만... 그 자손의 질병 생사를 마음대로 못하  
 저를 하물며 무덤 속의 마른 뼈다귀가 아무리 산천의 좋은  
 地氣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손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 p.143 )

- 閭田制 실시를 주장하여 늘고 먹는 양반 지주 계급들의 청산  
 요구 ( p.143 )

《...人民들이 선출한 신하들이 모여 국왕을 개선하는 것은 다  
 셋 집이 모여 隣長을 개선하는 것이나 스 다섯 집이 모여  
 里長을 개선하는 것이나 모두 마찬가지니 누가 이것을 신하가 임금을 징벌하는  
 것이라고 말하겠는가》고 말하면서 군중이 지지하지 않는 국왕이나 관리를 개선하  
 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며 《반역》이 아니다라고 함 ( p.144 )

- 그는 또 《천하에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도 인민이지만 높고  
 무겁기가 산 같은 것도 人民이다》라고 하면서 인민들을 열렬히  
 사랑하고 동정하는 자기의 관점을 밝힘 ( p.145 )

5) (實學 思想의 特性과 그 歷史的 的의) - ( p.145 ~ 146 )

- 特性 - ① 人民대중의 이해관계와 지향을 반영함.
- ②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투쟁임.
- ③ 사대주의·교조주의적인 학풍을 반대함.
- ④ 농민들이 반드시 토지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  
 수함.
- ⑤ 신분 철폐·만민 평등·재능에 의한 인재 등용 등,

인간의 개성을 해방시키려는 진보적 사상임 ( p.145 )

· 역사적 의의 - ( p.145 ~ p.146 )

- ① 반봉건적 세력의 희망을 대변함.
- ② 자주적인 경제 문화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촉구함.
- ③ 그들의 연구 성과가 인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킨 점.
- ④ 각종 종교 비판과 唯物論의 사고의 전개.
- ⑤ 뒤에 개화 사상과 계몽 사상으로 발전함 ( p.146 )

o 실학 사상의 제한성 - ( p.146 )

실학자 자신들이 자체의 계급적 제한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회혁명 사상으로 발전하지 못함.

o 오늘 우리 당은 실학자들이 남긴 유산을 연구함으로써 그들이 남긴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는 현명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p.146 )

6) 과학의 발전 ( p.146 ~ 151 )

o 천문학 - 이 시기의 농업 발전과 더불어 理學의 존화 사상, 종교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무기로 리용되면서 크게 발전함  
( p. 146 )

o 金正禧 - 역사 고고학을 창시함 ( p.149 )

· 진홍왕의 순수비 ( 북한산비와 황초령비 ) 를 발견하고 고증함  
( p.149 )

o 金正浩 - 그의 지도 제작은 열렬한 조국애와 과학을 위한 자기 희생적 노력임. 특히 부친의 위대한 사업을 도운 그의

말의 높은 애국심과 효도는 오늘도 우리 인민들을 감동시킴  
( p. 150 )

o 대동여지도의 축척 - 1 : 162,000 으로 함 ( p. 150 )

差 : o 16 책지 ( p. 131 ~ 146 ) 에 걸쳐 實學을 詳論하면서 唯物  
論과 關聯시켜 登場시킨 人物은 「리수광 류형원 리익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등이고, 節을 바꾸어 「과학의 발전」에  
「홍대용 홍만선 박지원 박제가 류중립 허임 리익 정약용  
한백겸 안정복 리궁익 김정희 리중환 김정호」등을 따로 言及  
하고 있음.

7)(文學의 발전) - ( p. 151 ~ 162 ) ( )

사회 모순의 첨예화와 인민들의 투쟁이 점차 장성함에 따라 人民  
들의 지향을 반영한 서민 문학이 창작 보급됨 ( p. 151 )

· 18 세기 문학사조 → 사실주의 문학 대두, 사실주의 문학은 유  
교적 색채를 띤 형식주의적 창작수법을 반대함 ( p. 152 )

o 이 시기 小說 창작상에 나타난 중요 특징 - ( p. 152 )

① 국문 보급에 따라 국문 소설이 창작되어 인민들에게 보급됨.

② 口伝되어 오던 실화들이 소설화.

③ 주제와 내용에서 인민들의 생활, 념원, 지향들이 반영됨.

· 대외·대내의 슬기로운 인민 투쟁.

· 봉건 윤리 배경과 개성의 해방.

· 지배층에 대한 냉혹한 비판, 조소 ( p. 152 )

o <<박씨 부인전>> - 이것은 여자를 멸시하며 한평생 규방에서  
살게 하던 봉건적 체습을 반대하는 진보적 입장을 반영함 ( p. 153 )

- 허균 - 량반 서자 출신으로서 봉건 제도의 불합리성을 깨닫고 반대파 관리들을 규합하여 리조 왕조 전복을 위한 투쟁을 전개한, 당시 선진적인 사상가이며 작가이며 시인임 ( p. 153 )
- <<홍길동전>> - 봉건적인 신분 제도를 반대하고 봉건적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일어선 농민 봉기를 반영한 작품임 ... 그러나 역사적 제한성으로 인하여 그것은 다만 이상적인 封建王國을 범원하는 데 머물고 말았음 ( p.153 )
- <<구운몽>> - 봉건적 이데올로기의 구속과 적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개성의 자유를 지향한 작품임 ( p.154 )
- <<장화홍련전>> - 환상적인 수법에 의하여 원한을 푸는 ... 비 현실적인 것이기는 하나 봉건적 량반 가족 제도와 그 당해 사회가 빚어낸 사회적 악행에 대한 인민들의 복수와 증오의 기분이 반영됨 ( p.154 )
- <<콩쥐 팥쥐>> - 슬기롭고 근면한 여성상을 그렸고 ... 노동의 기쁨을 ... 천대와 착취를 받아 오며 등골이 휘도록 일해 오던 인민의 원망을 반영한 것으로 소설의 마지막에 와서 계모와 팥쥐가 엄벌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인민들의 심판임 ( p.154 )
- <<토끼전>> 토끼는 근면하고 지혜있고 최후의 승리를 믿고 사는 人民들, 자라와 용왕은 탐욕적인 량반 통치 계급으로 묘사한 작품임 ( p.155 )
- <<홍부전>> - 작가는 상품화폐 관계가 장성함에 따라 벌어지는 착취계급(농부 형상)과 인민(홍부 형상)간의 대립 투쟁을



반영 ( p.155 )

差: 이는 階級鬭爭의 圖式에 맞추려는 경향이 농후함.

o << 심청전 >> - 심청의 파란 많은 생애를 통해서, 가난하고 간고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오고야 말 光明의 세계를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보여 줌 ( p.155 )

- 심청은 인민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조선의 딸.
- 불교의 위선성·반인민성 폭로 ( 눈을 뜬 것은 부처의 힘이 아님 )
- 가난한 사람은 귀중한 생명도 보존치 못하는 사회의 불합리성 규탄.

o << 춘향전 >> - 봉건 신분 제도를 초월한 남녀의 사랑과 량반 관료배들의 포악성, 반 인민성을 폭로한 작품 ( p.156 )

o << 량반전 >> - 량반의 허위 허식, 공명심과 출세주의, 그들의 기생층적 생활을 폭로 ( p.157 )

o << 閼翁伝 >> - 놀고 먹는 량반 관료 지주들을 통털어 ( 눈에 있는 ) 황충으로 묘사함 ( p.158 )

o << 허생전 >> - 농민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봉건적 예속으로부터 해방되어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는 농민 해방의 사상을 주장함 ( p.158 )

o 詩歌의 발전에서 나타난 特徵 - ( p.158 ~ 159 )

- ① 서민 계층의 생활 감정과 인민들의 지향이 다양하게 반영됨.
- ② 사실주의적 경향이 현저함.

③ 애국주의적 사상과 인민들의 웅장한 포부와 낭만적 성격이 담겨짐.

○ 김 천택 — 량반 통치자들의 부패상과 그들의 부귀영화만을 탐내고 있던 생활을 비판함과 동시에 농민들의 근면성·소박성을 찬미함 ( p.159 )

○ 김 수장의 당쟁에 대한 비판 시.

“검으면 죄다 하고 희면 겁다 하네, 겁거나 희거나 옳다 할이 전혀 없다. 차라리 귀막고 눈감아 듣도 보도 말리라” ( p.160 )

○ 박 지원의 << 흑석정에서 해돋이 구경 >> — 이 시에서는 어두운 장막을 뚫고 힘차게 솟아 오르는 해돋이를 통하여 착취와 압박의 멍에를 박차고 장차 을 光明과 希望에 찬 조국에 대한 작가의 념원이 넘쳐 흐름 ( p.160 )

○ 박 지원의 << 농가 >> 시.

“새 쫓는 하라벌 밭둑에 앉았고  
개 꼬리 조이삭에 참새 날리네.

… ( 下 略 ) …

병아리 채려던 소리개 멀찌기 돌고  
울밀의 못 담은 야단만 치네”

… ( 中 略 ) …

참새·소리개를 통해 지주의 약탈 묘사 ( p.160 )

○ 정 약용의 시는 봉건 통치자들의 부패와 약탈 행위를 폭로한 것이 많음.

• << 뭇주린 인민 >> 에서 —

불인양 나무인양 우리 인생이  
물과 흙으로만 살아 간다네

... ( 중 략 ) ...

쌀이여 구슬보다 귀하다거니

너 어찌 배 부르게 먹었을 소냐...

○ 정 약용의 << 고양이의 논고장 >> — ( p.161 )

지방 관리들을 쥐로 묘사했고, 암행어사를 고양이로 묘사하고, 고양이는 쥐를 잡는 것이 아니라 쥐와 결탁하여 인민들의 재물을 훔쳐 먹는다고 논고함( p.161 )

○ 정 약용의 << 더운 날에 술을 마시며 >> —

그는 이 시에서 량반 지주들의 토지 독점, 군포 착취와 봉건적 신분제도 등 전반에 걸쳐 신랄한 비판을 가함( p.161 )

○ 金 裳갓의 << 가난한 집(貧家) >> ( p.162 )

“상 우에는 고기 한 점 없어

채소만이 권세를 부리고 있네,

부엌에는 나무 한 가치 없어 울타리만 화를 입도다.

부자간 문을 나설 때면

한 벌 옷을 서로 갈아 입고

시어머니 머느리는

하나 밖에 없는 그릇으로

밥을 먹도다.”

o 김홍도의 그림 << 지주와 타작하는 사람 >>

거만하고 무례한 지주들과 착취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생활상을 묘사 ( p.164 )

o 1754년 건축된 안주 白祥樓는 지난 조국 해방 전쟁시기 미제에 의해 파괴 소각됨 ( p.167 )

差: 위의 文学藝術의 새경향은 17 ~ 18 세기의 政治 經濟 社會의 變化와 實學의 發達 등 學風의 變遷에 따라 나타난 것인데 我田引水로만 해석하고 있음

라. 近世史

差: <最近世史>

㉞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 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 19세기 60년대 ~ 80년대 초 )

o ( 大院君의 對內外 政策 ) ( p.169 ) -

봉건 제도의 부패성과 무질서를 바로 잡으며 人民들의 반 봉건 투쟁에 대처하여 일정한 << 양보 >> 를 함으로써 봉건 국가의 국내외적 위기 수습과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함 ( p.169 )

o 大院君의 정책은 인민들의 줄기찬 반 봉건 투쟁에 대한 봉건 지배 계급의 일정한 << 양보 >> 와 관련되는 것이며, 투쟁에서 쟁취한 인민들의 부분적 << 성과 >> 이기도 한 것임 ( p.170 )

o 1866년 구미 자본주의 국가들의 침략의 압잡이로 되고 있던 반역적인 기독교도들을 단호히 처단함 ( p.171 )

o 大院君의 政策의 제한성 - 그는 자기의 정책을 당시 세계사

발전의 요구였으며 또한 우리 나라 자체의 발전 역시 그것을 요구한 부르주아 개혁과 결부시키려고 하지 않았음 ( p.171 )

o 美國은 우리 나라에 무력 침공을 감행한 첫 자본주의 침략자였으며 따라서 역사적으로 되는 조선 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수임 ( p.172 )

① 미국 자본가들은 1845년 미국 국회 하원에서 조선 침략의 계획을 토의함 (프랏트가 <<조선 개방안>>을 하원에 제출함)

② 미국의 첫 침략 사건인 <<샤만호 사건>>은 우연한 침입 사건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침략 사건임 ( p.172 )

③ <<샤만호>>의 선주인 미국인 프레스톤 일당은 미국무성의 직접적 조종하에 ( 움직임 ) ( p.172 )

④ 조선 침공의 목적은 -

i ) 극동 침략을 위한 군사기지 확보.

ii ) 통상 조약으로 상품시장 획득

iii ) 평양 부근의 유물 약탈코자 ( p.172 )

<<샤만호 소각 사건>>의 발단: ( p.173 )

· 조선측 - 난파선의 레에 순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라 식량·음료수 등을 공급한 인도주의적 조치.

· 샤만호측 - 함부로 총질 학살, 민가에 방화하고, 철거 조건이라 하여 1,000 석의 쌀과 금·은·인삼 등 불자 요구, 날 강도의 본성을 더욱 뚜렷이 함 ( p.173 )

o <<샤만호>> 격침시의 전리품인 두 문의 대포는 조선 혁명

박물관과 중앙 역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음.

이 대포들은 조선 인민의 애국적인 첫 반미 투쟁에서  
의 빛나는 승리를 길이 전해주고 있음. ( p.174 )

○ 남연군 묘 도굴사건은 상해 주재 미국 총령사관 직원이었던 미  
국 자본가 켄킨스에 의하여 감행됨. ( p.177 )

○ 상해 주재 미국 총령사관은 켄킨스 도당에게 도굴 행위에 쓸  
선박·인원·무장 기타 일체 경비를 보장함 (178)

○ 1868년 3월 미국 군함 <시난도아 호>의 평안·황해도 연안에  
서의 소요는 조선 정부의 관심을 여기에 끌어, 주의를 만 데로  
돌림으로써 켄킨스 일당의 도굴 행위를 용이케 할 목적으로 이루  
어진것 (p.178)

○ '도굴단'의 길안내를 담당 한 것은 청국에 도주하였던 기독교인들이  
였음. 기독교인들 중 적지 않은 자들이 처음부터 매국노로서 침  
략자들의 주구로 이용되었음을 보여 줌 (p.178)

○ 도굴 행위가 인민들의 결사적 반대로 실패하자 도굴행위가 인민  
들은 전쟁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인도주의적 청신>에서 나왔으  
며 속히 조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면 얼마 후에 대규모적 무력  
침공을 감행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남기고 돌아감 (p.178-179)

○ 신미양요 후, 로우는 그의 본국에 보낸 한 보고서에서 <조선인  
들은 결사적으로 무장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들의 용감성은 일찍  
이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세계 어느 민족도 조선인들의 용감성을

따를 수 없을 것이다 > ( p.182 )

差 : 이사건의 주모자는 오펜트(독일인) 켈킨스(美国人) 페론(仏國人) 등 인테 미국인 켈킨스만 내 세운것은 옳지 않고 저의가 있음

○ (대원군 정권의 붕괴) - ( p.183-184 )

- ① 봉건 제도를 타파하고 문명 개화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지향에 발맞추어 선진 문명을 주체성있게 섭취하지 못했음 (p.183 )
- ② 국내에서 장성하고 있던 자본주의적 요소를 조장시키지도 못함 ( p.183 )
- ③ 대원군은 반대 세력을 정권에서 내모는 데 급급했을 뿐, 그들을 숙청 하거나 경제적 기반을 박탈치 못함 (p.184 )

○ 신미 양요 뒤, 미국의 태도 - ( p.185 )

미국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동방의 천병으로 추거 세워 조선 침략을 개척케 하고 그들을 뒤따라 들어와서 무장 침략으로써 달성하지 못한 그들의 침략 야망을 달성코자 함.

• 1873년 2척의 군함과 많은 신식 무기를 대여하여 줌 (p.185)

• 운양호 사건 후 주일 미국공사 영행은 이노우에게 미국인의 태일리의 저서 <페리의 일본 원정 소사(小史)>를 기증하고 <당신이 이책을 잘 읽고 그대로 행동하면 당신은 조선에서 성공할 것이다>라고 타일러 줌 (p.186 )

○ 강화도 조약 체결은 민씨 정권의 파오.

- ① 당시 우리 나라에는 일본 자본주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역량이 있었음 ( p.188 )
- ② 민씨 일파의 외국 침략 세력과 타협한 우유부단한 정책은, 지배 계급들은 민족적 이익이 자기들의 계급적 이해에 저촉된다고 생각될 때에는 언제든지 서슴없이 나라와 인민의 이익을 저버린다는 역사적 경험을 남김 ( p.188 )
- 교활한 미국 침략자들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 데 적극 방조한 대가로 일본의 도움으로 우리 나라와의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려고 함 ( p.189 )
- 일부 봉건 통치배들은 일본의 침략을 제어하기 위하여서는 미국 세력에 의거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면서 국왕을 이런 방향으로 움직임 ( p.189 )
- 萬人流에서 유생들은 — 일본과 미국은 다같은 침략자들이며 어느 한 나라에 대해서도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신랄하게 지적함 ( p.189 )
- 민가 일파 통치배들의 태도 —
  - ①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 역량에 의거하는 방법으로써 일제 (日帝) 를 견제하려한 것이 아니라,
  - ② 적을 리용하여 적을 견제하는 (以敵制敵) 럽장을 취함.
  - ③ 제3 세력인 침략자로서 <친선>, <평화>를 말버릇처럼 떠드는 교활한 미국 침략자들을 리용하려 함 ( p.189 )
-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



구미 자본주의 열강들과 보다 광범한 연속적 관계를 맺게 되는 직접적 계기로 됨 ( p.190 )

北: 임오군란을 「 1882 년의 군인폭동」이라 하고 「 군인폭동은 정의적이며 애국적인 투쟁이었다 」

差: 日帝侵襲에 대한 抗日意識을 나타낸 면이 있지만 開化하는 면에서 보면 그렇지 만도 않음

◎ 甲申政變

北: 甲申政變을 「 1884 년의 정변」이라 하고 「 낡은 봉건적 이데올로기가 점차 반영되어 자본주의적 문물제도를 모방하려고 하는 기운이 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경향을 <개화사상>으로 불러 짓는바 ... <개화사상>속에는 지난 세기에 <실학파>에 의하여 논의된 <실사구시>의 면들도 적지 않게 반영되고 있었다. 」

「 랍후로 부터 선진으로, 무지로 부터 문명으로 조선을 지향시키려고 한 점에 있어서 또한 외래의 위협으로 부터 나라의 자주성을 강화시키려고 한 점에 있어서 애국적 인민의 선진적 사상의 반영이었다. 」

差: 「 봉건적 이데올로기」 「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 운운은 唯物史觀에 의한 公式化的 所致이며 實學思想과 開化思想을 連結시키려는 것은 南北韓이 大同小異함.

「외래의 위협으로 부터 나라의 자주성을 강화」云云하고 있으나 甲申政變은 바로 지나치게 外勢에 의존한 他律的 쿠데타였는데 그 弱點이 있었음을 重視해야 겠음.

◎ 甲午農民戰爭

北：「봉건 지배 계급과 일본 약탈자들에 대하여 농민대중을 중심한 압박 받는 인민 대중만이 革命的인 정당한 鬪爭을 전개 하였다.  
差：「압박 받는 인민 대중만이」云云 하는것은 저들의 소위 階級 鬪爭史觀의 所産이며 東學革命運動을 南에서 東學亂, 東學革命 또는 農民戰爭이라는 등 여러모로 부르고 있어 統一의 需要가 있음.  
우리는 이 運動이 結局 淸日戰爭을 誘發시켜 우리 나라에서 日帝가 独占的 地位를 確保케 되었다는데 留意해야 겠음.

◎ 반일 의병 鬪爭과 애국문화 제봉운동 ( 1895 ~ 1910 )

北：俄館播遷 「일본 침략군에 감금된 국왕은 1896년 2월에 왕궁을 탈출하는데 성공하여 로씨야 공사관으로 파견 하였다」  
差：이는 親露派인 李範晳 등이 웨베르 公使와 共謀하여 러시아 公館으로 데려간 것임.  
「脱出」云云은 소련과의 關係를 意識하여 그렇게 한것이 아닌지 모르겠음.

◎ 3.1 운동

北: 「위대한 로씨야 사회주의 10 월혁명 영향하의 조선민족 해방 운동의 장성」이란 章 밑에 「10 월 혁명이 조선인민에게 준 영향」 「1919 년 3 월 1 일 반일 시위와 전국적 인민봉기」란 項으로 叙述하고 있음.

소위 10 월 혁명에서 「볼셰비즘의 위대한 해방 사상을 배웠다」 「혁명적 양양 속에 민족주의자들도 휩쓸려 들어갔다」

「부르조아 지주의 리해관계로 대변한 천도교 기독교 불교 출신 목사 승려등 33 명이 망라 되었다.」

「…독립을 위한 결정적 투쟁은 정권 토지 및 인민의 권리에 관한 제문제의 명백한 조선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서>에는 아무 조항에도 그것이 지적되지 않았다」.

「그들은 <평은 무사한 시위>로서 자기들의 죄가 경감될 것만을 념원 하였다」

「<민족대표>는 그림자 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벌써 그때에 인민대중이 없는 단 장소에서 자기들끼리만 독립을 선언하고 군중들에게 들켜날까 두려워 총독부 경찰에 자수 하였던 것이다」

「인민 봉기는 이 시기 제국주의의 동방에서의 변적으로 등장한 일제의 야수적 탄압에 의하여 실패 되었다」

「인민 봉기는 해방투쟁을 변절한 민족주의자들이 배신으로 더욱 손실을 입었다. 이자들은 인민이 피흘리고 싸울때 상해에서 소위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미국에 대한 애원운동만 진행하였다]

「이것은 조선인민이 자기투쟁을 성공 하려면 위대한 소베트 로씨야와 혈연적으로 결부되지 아니하고는 승리적 투쟁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 하였다」

差：3.1 運動이 民族自決主義의 영향 아닌 볼셰비즘의 영향으로 勃發하였다고 쓰고 있는 것은 牽強附會임.

民族主義者들이 3.1 運動에 「휩쓸려 들어갔다」느니 「부르조아 지주의 리해관계로」 「군중들에게 들켜날까 두려워」 「배신으로 더욱 손실」云云은 이 運動이 民族主義運動이 아닌 것으로 꾸미는 것임.

이 運動에는 知識人 學生 農民 商工學者 勞動者 심지어 官吏까지 網羅되고 있음.

大韓民國 臨時政府를 無視한것은 이가 民族主義者들로 構成되었고 또 이 政府가 共產黨의 戰略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史料됨.

3.1 運動을 失敗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韓國에서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은것 같음. 그러나 3.1 運動을 失敗한 것으로만 보는것은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생각됨.

## 5. 나머지 말

- 北韓의 「조선력사」는 初等·中等·大學用을 막론하고 一律의인 唯物史觀 階級鬭爭 論理에 의하여 圖式化되어 있으므로, 古代·現代를 통하여 「부쟁」 「폭동」이 그 主流가 되어 있고, 이른바 革命 戰士의 양성을 위한 敎條 敎示가 도처에 넘쳐 흐르고 있음.
- 그리하여 外勢의 侵害나 集權의 矛盾이 많았던 우리 歷史에 있어서 이를 막아낸 對外투쟁이나 對內鬭爭은 새롭게 생각할 문제 提起를 한 대목도 없지 않으나 늘 階級투쟁으로만 결부시켜 어색함이 매우 큼.
- 더욱 王朝나 宗教, 어떤것은 學問活動까지 거의 不純한 目的으로 출발하고 欺瞞行跡만 일삼은 것처럼 내세운 것은 위의 史觀의 한 適用때문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때나름의 民族的 發展이나, 그때의 참다운 世界的 水準에 도달한, 아니 그 以上の 結實까지 이른 先人들의 內面的 努力, 그를 뒷받침한 全般的인 文化發達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임.
- 여기에도 一方性을 止揚하고 民族上下의 總和的 成果가 나오게 된 文化期의 政治·經濟·社會·文化는 앞으로 새롭게 다져야할 必要性이 緊要한바, 우리의 民族, 國土, 文化的 特性을 歷史的 時間性과 空間性에 비추어 보지않고 지금 당장의 自己欲求와 獨斷에서 지난 날의 半島中心的, 文化中心의 特性을 멋대로 헐뜯는 弊端을 고치지 않으면 民族의 自己中心 自己本位의 主体的史觀은 좀처럼 成長되기 어려울 것을 명심해야 하겠음.

附 .

用 語 對 比 表

- 部族 → 種族 ( p.18 )
- 部族聯盟體 → 種族同盟體 ( p.19 )
- 箱式石棺 → 돌상자 무덤 ( p.21 )
- 甌石塚 → 돌각담 무덤 ( p.21 )
- 辰 王 → 큰큰치 ( 健吉文 )
- 花郎徒 → 花郎團 ( p.76 )
- 금관加卵 → 김관加卵
- 三國時代 → 세 나라 시기
- 薩水大捷 → 淸川江大勝利
- 三國統一 → 新羅에 의한 百濟와 高句麗 一部的 統一 ( p.105 )  
" 國土 南部의 統一
- 祿邑 부활 ( 757 ) → 文武官 僚田制 ( 757 )
- 귀주大捷 → 구주大勝利
- 李施愛의 亂 → 咸鏡道 農民戰爭 ( 暴劫 — 교교 교과서 )
- 壬辰倭亂 → 壬辰祖國 戰爭 1592 ~ 1598 戰爭
- 洪景來의 亂 → 平安道 農民 暴動
- 壬午軍亂 → 1882 년의 軍人 暴動
- 甲申政變 → 1884 년의 政變
- 東學革命運動 → 甲午 農民戰爭
- 단말 → 國文
- 귀양살이 → 定配 살이